

내 뇌 속의 선택지가 학원 러브 코미디를 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 1권

제1장 아마쿠사 카나데의 만만치 않은 일상 003

막간 어떤 가능성의 이야기1 069

제2장 유키히라 후라노의 진실 071

막간 어떤 가능성의 이야기2 149

제3장 유오지 오카의 새로운 세계 151

막간 어떤 가능성의 이야기3 238

에필로그 240

제1 장 아마쿠사 카나데의 만만치 않은 일상

사람은 길에 야한책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있다면 힐끔 보게 되기 마련이다.

고등학생쯤 되면 체면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바로 주울 수는 없지만, 당연히 있는 힘을 다해 힐끔거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펼쳐진 페이지가 조금 마니악했기 때문에 텐션도 약간 상승.

하지만 그런 작은 행복은 쉽게 부서지는 법이다.

[선택하시오. ①얼굴을 파묻고 냄새를 맡는다. ②먹는다.]

지금 현재 내 머릿속에는 이런 선택지가 떠 있다.

그리고 이 선택지는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야한 책은 보통 내용을 보고 흥분하는 것이다. 책의 냄새를 맡거나 먹어서 흥분한다면, 이미 맛

이 간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 냄새를 맡았다.

역시 흥분되지 않았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책이 너무 가까워서 살색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으앗 , 뭐야, 저 녀석.”

“야한 책 냄새를 맡고 있어, 변태다!”

길을 초등학생들이 큰 소리를 내며 손가락질을 했다.

“큰일 났다, 에로 스멜이 이쪽을 봤어!”

“하하, 저 녀석 분명 동정일걸, 동정.”

초등학생들은 웃으면서 달려갔다.

“.....아침 땃바람부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면서, 야한책을 길바닥에 살짝 내려 놓았다.

‘절대 선택지’

내가 멋대로 이름을 붙인 이 현상은 그 이름대로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선택지다.

부정기적으로 머릿속에 나타나는 그것은 문자도 음성도 아니다.

어딘가에서 발신된 정보가 직접 뇌에 수신되어서 , 순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할까.

즉, 이것은 오감을 완전히 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을 감든 귀를 막든 , 어느 한쪽을 선택할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어머, 카나데.”

갑자기 앞에서 무척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으—."

고개를 들자 내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사람은 곤도 다이코(마흔) 씨였다. 근처에 사는 주부로 체중이 족히 세 자리를 넘는다고 하는, 박력 있는 체격의 부인이다.

“카나데, 이제 학교 가니?”

“아 , 네.”

편의점에 갔다 오는 길인 듯한 다이코 씨는 ,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봤다.

“누후후 , 여전히 얼굴이 참 귀엽구나.”

“—음!”

등골에 오한이 들었다.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에게룩한 호의를 드러냈다.

본인 말로는 내 얼굴이 예전에 헤어진 남편이 젊었을 적과 쌍둥이처럼 똑 닮았다는 모양이다. 이 무슨 쓸데없는 기적인가.

그래서 평소부터 장난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조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지금은 학교를 핑계로 삼아 , 이 자리에서 재빨리 벗어나는 게 최선이다.

"가 , 감사합니다. 지각할 것 같아서 , 이만—."

[선택하시오. ①"안아주세요." ②"본능이 이끄는 대로 안아주세요."]

.....진심입니까.

이 선택지는 때때로 행동만이 아니라, 말까지도 강요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억지스러워도 선택지가 나타난 이상은 반드시 따라서관 했다.

그런데 이 ①과②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안아주세요."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순간, 머릿속의 선택지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동시에 다 이코 씨의 눈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빛이 깃들었다.

"카나데....., 드디어!"

위험하다, 이건 뭔가 위험하다!

"자, 잠깐만요, 방금은 없었던—."

"잘 먹겠습니다!"

뭘 먹어!?

맹렬히 돌진해 온 고깃덩어리가 온 힘을 다해 나를 끌어안았다.

"가아악!"

이 아줌마는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센 거야! 뼈 부러지겠네! 뼈격거리는 소리 나잖아!

"하....., 항보억."

내 비명은 있는 힘껏 무시당했다.

"고아아아아악!"

"후우, 잘 먹었습니다."

십수 초 후, 배가 부른(?) 듯한 다이코 씨는 나를 풀어주더니, 만족스럽게 누후후 웃으면서 쿵쿵 걸어갔다.

"흐어....."

힘이 풀린 무릎을 잡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을 겨우 버텼다

절대 선택지의 발생 간격은 완전히 무작위라서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아침 댓바람부터 안면 야한책에 다이코 허그 콤보는 너무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기 시작해서 교차로에 접어든 그 순간,

[선택하시오. ①미소녀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②다이코 씨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아니, 이건 아니지.

다이코 씨는 방금 집으로 걸어간....., 아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 절대 선택지에 물리 법칙 따위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질릴 정도로 맛봤다.

선택지가 나타난 이상 그것이 아무리 비과학적인 내용이라도 선택하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

즉, ②를 선택하면 100퍼센트 확률로 다이코 씨가 떨어진다. 그런 사람에게 직격당하면....., 죽는다. 육체, 정신 양쪽 다.

소거 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①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하니, 하늘에서 갑자기 사람이 출현하는 것일까. 머뭇머뭇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정면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쿠응!

“뜨아아앗!”

갑자기 어떤 물체가 맹렬한 속도로 눈앞에 낙하하더니, 지면에 격돌했다.

“뭐.....뭐야.”

나는 엉덩방이를 찢은 상태로 절규했다. 아니,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정

말이다, 정말로 뭔가 떨어졌어!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미 뭔가가 떨어졌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강렬한 의문이 떠올랐다.

"뭐야....., 이거?"

왜냐하면 떨어진 그 사람(?)이 브리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떨어진 그 사람(?)이 브리지를 하고 있다....., 음, 추가 정보가 제로다.

엎드린 것도, 바로 누운 것도 아니고, 애당초 쓰러져 있지도 않다. 정말로 훌륭하다고 할 정도의 브리지가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다.

.....왜?

너무나도 초현실적인 광경에 나는 잠시 동안 굳어버렸다.

그대로 수십 초 정도 지났을까. 그 브리지 생물의 자세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 졌다.

그걸 계기로 정신을 펄쩍 차렸다. 브리지의 충격 때문에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과, 괜찮아!?"

황급히 다가가서 그 사람의 몸을 흔들었다.

"응....., 후류?"

그 사람은 마치 잠에서 깬 것 같은 멍한 목소리를 냈다.

"다 , 다행이다....."

일단 생존을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내 눈앞에서, 그 인물이 고개를 들었다.

"어라? 여기는....., 어딘가요?"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 도중, 나와 눈이 마주쳤다.

"으....."

나는 무심코 숨을 삼켰다. 병적일 정도로 하얀 피부, 풍성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금발에, 축축하게 젖은 동그랗고 파란 눈동자. 초콜릿을 본뜬 듯한 색깔의 동화에 나올 것만 같은 의상.

그리고 무엇보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지나치게 아름다운 이목구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 외모에, 나는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나를 향해 그 소녀는 얼굴을 활짝 폈다.

"아마쿠사 카나데 씨지요."

"응?"

갑자기 나를 풀 네임으로 불러서 당황했다.

"어.....어어 , 그런데."

당황하면서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내 머릿속 어디에도 이런 미소녀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저기..... , 너는?"

"네, 제 이름은 말이죠..... , 어라? 제 이름은 말이죠..... , 그게....., 뭐였죠?"

"아니....., 난 모르는데."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동작을 취한 뒤에 손뼉을 탁 쳤다.

"알겠어요, 전 가벼운 기억 상실증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기운찬 목소리로 할 만한 말은 아닐 텐데.

"분명 떨어졌을 때 , 머리에 강한충격을 받은 걸 거예요."

아니, 너, 엄청나게 깨끗한 브리지로 착지해서 머리는 떠 있었거든.

"뭐 , 괜찮아요. 조만간 생각날 테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람쥐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람쥐라니 , 한물간 개그잖아. 게다가 그 런 외국인 느낌 만발한 비주얼로 말하

니, 위화감이 엄청나다.

“아, 정 그렇다면 임시로 다람쥐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사양하겠습니다.

“뭐, 이름에 대해서는 제쳐 두죠. 카나데 씨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응?”

바로 옆까지 다가와서 무방비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는 그 소녀에게서 문득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뭘까, 강렬하기까지한 이 기시감은.

“왜 그러세요? 카나데 씨.”

알겠다, 강아지다.

멋대로 다가와서 조건 없이 호의를 드러내는 이 느낌. 이 소녀와 강아지는 인상이 무척 비슷하다.

나는 그만 반사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차 싶었지만 그녀는 싫어하기는커녕, 기뻐하며 웃었다.

“에헤헤.”

“응?”

그녀의 앞머리 일부가 느닷없이 부자연스럽게 우뚝 솟았다. 쓰다듬는 것을 멈추자 원래 모양으로 스르륵 돌아갔다.

"아, 이건 말이죠, 기쁜 일이 있으면 어째서인지 멋대로 서더라고요."

꼬리냐....., 역시 강아지다, 이 녀석은.

갑자기 어떤 욕망이 솟아올라서 아무 생각 없이 ,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밀어보았다.

"손."

"넋."

.....하잖아.

"앉아."

"넋."

하잖아....., 이 녀석, 완전히 강아지네.

쿠규우우우우우우.

그때 뜬금없이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순간 어딘가의 성우에게 외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 애의 뱃속에서 난 것 같다.

"배, 뱃가죽이랑 등가죽이 붙어버릴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험쌀인가.

"배가 많이 고프가 보네..... 아, 맞아. 아직 몇 개 남았을 거야."

나는 문득 떠올라서 가방 안을 뒤적거렸다. 있다.

내 손에 든 한 입 사이즈의 초콜릿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아, 초콜릿이에요!"

"이런 거 좋아해?"

"정말 좋아해요!"

만면에 웃음을 띤 그녀. 진짜 강아지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은 금기지만, 이 애는 강아지 같아도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사람 맞지?

"자."

껍질을 벗겨서 가볍게 공중으로 던졌다. 그녀는 초콜릿이 떨어지는 곳으로 콩 뛰어올라서, 초콜릿을 입으로 잡았다.

"마히쨌요."

그녀는 행복한 듯이 웃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 꼬리 같은 앞머리가 쫘긋 서 있었다....., 재미 있네.

“아 , 이걸로 해요.”

그녀는 초콜릿을 다 먹고 손뼉을 탁 쳤다.

“이거?”

“초콜릿으로.”

“엉? 뭘?”

“제 이름 말이에요.”

“아니.....,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카나데 씨, 초콜릿 좋아해요?”

“뭐, 가방에 가지고 다닐 정도니까 , 단것은 대체로 좋아하는데.”

“그러면 제 이름은 초콜릿으로.”

그 안이한 발상은 뭐냐.

"아니, 초콜릿은 이상하지, 초콜릿은."

"그런가요? 그러면....., 살짝 지적으로, 쇼콜라로 하죠!"

어느 부분이 지적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쇼콜라라면, 뭐, 초콜릿보다는 이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강아지의' 이라는 조건이 붙겠지만.

"자, 결정이에요!"

뭐, 본인이 수긍한다면 그걸로 된 거겠지.

잃어버린 건 기억의 일부인 것 같으니, 이것저것 물어보면 이름이 생각날지도 모르고 말이다.

쇼콜라(?)가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목적부터 물어보았다.

"카나데 씨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아무런 주저도 없이 말했다.

"뭐? 내....., 시중?"

"네, 아직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것만은 분명해요."

어쨌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그렇구나....., 그러면 출신이라고 해야 하나, 어디서 왔어?"

"저기요!"

그녀는 머리 위를 척 가리켰다.

"응? 북쪽이라는 말이야?"

겉모습으로 봐서 동양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니 , 러시아나 북유럽 쪽일까.

"아니요, 하늘 위요."

"하늘..... 위?"

"맞아요!"

아니 , 그야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요컨대, 너는 내 시중을 들기 위해, 하늘 위에 있는 세상에서 찾아왔다는 말이야?"

"그래요!"

만면에 미소를 띠며 승리 포즈를 취하는 쇼콜라. 대조적으로 내 안에서는 무언가 열이 스욱 식어 버렸다.

"안녕."

"왜 , 왜 가버리는 건가요, 기다려주세요!"

아니 , 그야....., 엄청 수상하잖아.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까 , 시험 삼아 옆에 뒤 보세요!"

어쩐지 두 손을 비 비면서 바짝 뒤쫓아 오는 쇼콜라.

"아니, 됐거든요."

"지금이라면 세제도 드려요!"

"신문이냐."

"수박이랑 튀김도 었어 드릴게요!"

"배탈 나잖아!"

"원숭이랑 사과도 었어 드릴게요!"

"바나나도 기차도 필요 없어!"

"혼인 신고서랑 이혼 서류도 었어 드릴게요!"

"그건 절대로 같이 주면 안 되는 거잖아!"

"땅이랑 땅문서도 었어 드릴게요!"

"그건 좀 갖고 싶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겠지!"

"'구리와 구라'도 었어 드릴게요!"

"갖고 있어! 명작이니까 이미 갖고 있다고!"

"바보랑 시험도 었어 드릴게요!"

"뭔가 하나 부족하잖아! 그것만 있으면 그냥 낙제점이잖아!"

"그러면 '이 수상한 향아리를 사겠습니다.' 라고 적힌 서류에 사인을."

"혼란을 틈타서 뭘 팔려고 하는 거야!"

.....큭, 이 녀석은 도대체 뭐야.

이 이상 엮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나는,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했다.

"아아앗!"

뒤에서 엄청나게 작위적인 목소리가 났다. 하지만 무시하고 그대로 앞으로 걸었다.

“아아아앗!”

.....반응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기 때문에 , 마지 못해 뒤를 돌아보니, 쇼콜라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속이 뻘히 들여다보이는 교태를 부리면서,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디에서 꺼냈는지 소도구로 손수건을 입에 물고 있었다....., 어쩐지 짜증 난다.

“그럼 , 이만.”

“자 ,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연약한 여자애가 쓰러져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괜찮니 , 베이비.’ 라고 , 그럴듯한 배려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대사를 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르뿐이다.

“있잖아, 나는 지금 학교를 가야 돼. 너 같은 애랑 이러고 있을 시간 없거든.”

호칭이 자연스럽게, 너에서 너 같은 애로 바뀌었다. 내 뇌가 이 생물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자자 , 그런 말씀 마시고 뭐든지 들어드릴 테니, 명령해주세요!”

“그럼, 나한테 상관하지 마.”

“아 , 유감이네요. 제 힘을 뛰어넘는 소원은 이를 수 없어요.”

네가 용신이나.

난감하다....., 이 이상한 생물을 떼어 내려면 , 어떻게 해야 좋을까.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던 내 시야에 이쪽으로 다가오는 어떤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다.

"쇼콜라 씨, 쇼콜라 씨."

"네, 무슨 일이죠?"

가방에서 남은 그것을 꺼냈다.

"아, 초콜릿이에요!"

"갖고 싶어?"

"네!"

초콜릿을 왼 손을 머리 위에서 흔들어 보였다.

"주세요!"

쇼콜라는 쿵쿵 뛰어봤지만 키가 작아서 전혀 닿지 않았다. 머리 위에서 초콜릿을 흔들면서 타이밍을 잴다.

좋아, 딱 괜찮을 것 같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얏!”

이쪽으로 달려와서 스쳐 지나가는 경트럭의 짐칸에 초콜릿을 던져 넣었다.

“아, 초콜릿 씨, 기다려주세요!”

쇼콜라는 폴짝거리는 발걸음으로 경트럭을 따라갔다.

트럭은 순식간에 멀어져 갔지만 쇼콜라는 포기하지 않고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다.

“진짜로 따라갈 셈인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바보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멋지게 걸려들 줄은 몰랐다.

골든 위크가 끝나서 달력상으로는 이제 막 여름에 접어드는 시기였지만, 기분 좋게 따스한 햇볕에는 아직도 봄의 분위기가 짙게 남아 있었다.

“뭐....., 이상한사람은 조심해야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리면서 학교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사립 세이코 학원은, 1학년에만 반이 열다섯 개나 되는 상당한 맘모스 학교이기 때문에, 부지도 쓸데없이 넓다.

즉, 교문에서 현관까지도 꽤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안면 야한책, 다이코 씨의 허그, 수수께끼의 강아지스러운 생물과의 조우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부하가 걸려 있던 나는, 진저리를 치면서 교정을 횡단했다.

몇 분 뒤, 겨우 현관까지 도착했다. 다행히 2학년 1반 교실은 2층의 맨 앞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나머지는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안녕.”

나는 교실 문을 열고 눈에 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내 자리로 가려는 도중에,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여자애가 눈에 들어왔다.

유키히라 후라노.

정말로 그냥 서 있는, 단지 그뿐인데도, 그 모습은 묘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어서, 유키히라의 주위만 이질적인 공기로 뒤덮인 것 같았다.

이름의 이미지를 그대로 체현한 것처럼, 하얀 머리색은 창문에서 비치는 햇빛을 받아서, 금방 내린 눈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여어, 안녕, 유키히라.”

그녀가 그 목소리에 반응해서 고개를 돌렸다. 어딘가 무기질적인 인상은 있지만 무척 아름다운 이목구비다.

유키히라는 눈썹도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안녕, 구더기 자식아.”

“.....영?”

말도 안 되는 폭언이 날아왔다.

다른 사람이라면 뭔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 누가 뭐래도 상대는 유키히라다. 이 정도로 기가 죽어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어, 오늘은 날씨가 좋네.”

“좋은 것 같네, 구더기 자식아.”

“이런 날은 학교 땡땡이치고, 어딘가 놀러 가고 싶어지는 걸.”

“어머, 의외로 개구쟁이구나 , 구더기 자식아.”

“그런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인데 , 그게 어쩔다고 , 구더기 자식아."

"당신은 화제 전환이라는 말도모르십니까!?"

키히라는 언성을 높이는 나에게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 ,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해. 별것 아닌 벌레 농담이야."

"벌레....., 농담? 도대체 그게 뭐야?"

인생에서 처음 듣는 단어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말이야, TV의 운세 코너에서 오늘은 뭔가 벌레랑 관련된 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나왔거든. 꼭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신경이 쓰이잖아?"

"응, 그래서?"

"그렇다면 농담으로 웃어넘기자 싶어서."

"무지막지한 역발상이군....."

"나는 운명에 굴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반골 기질이 있는 여자니까. 수궁이 가지 않는 일에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저항 할거야."

"아니..... , 어떻게 봐도 그런 장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

"덧붙여서, 아마쿠사 군이 정 싫다면, 다른 벌레 농담을 들려줄게."

"아니, 괜찮은데."

"덧붙여서, 아마쿠사 군이 정 싫다면, 다른 벌레 농담을 들려줄게."

아무래도 들어줬으면 싶은 모양이다. 어설프게 거절해 봤자 길어지기만 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만 들어볼까."

"....."

"유키히라?"

"....."

"여보세요, 유키히라 씨?"

"헤이, 내 말 좀 들어봐, 무슈. 오늘, 멍청한 반 친구를 무시해줬다네!"

시시하기 짝이 없었다.

"덧붙여서, 지금 한 농담은 벌레와 무시의 발음이 같은 것만이 아니라, 무슈와도 미묘하게 비슷한데, 눈치했어?"

".....아니 ,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먹히지 않은 개그를 스스로 설명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멘탈이 강한 걸까.

"그러면 방금 개그를 위해서 나설 자리를 잃어버린 조지는, 도대체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야 돼!?"

"그건 또 누구야!?"

유키히라 후라노는 기본적으로는 쿨한 캐릭터지만, 때때로 개그를 치거나 갑작스럽게 텐션을 올리는 통에 , 아직도 진짜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다.

"어머 ,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야 , 아마쿠사 군? 마치 당장이라도 어린 여자아이를 덮치러 갈 것 같은 표정인 걸."

".....도대체 그게 어떤 표정인데."

"혹은 마을 입구에서 영원히 '여기는 시작의 마을이어유.' 라는 대사를 되풀이하는 마을 사람 같은 표정이야."

"아니 , 그 두 개 사이에서 눈곱만큼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혹은 마을 입구에서 영원히 '하아..... , 하아....., 너 혹시 조그마한 여자아이 못 봤냐?' 라는 대사를 반복하는 마을 사람 같은 표정이야."

"억지로 합쳤을 뿐이잖아!"

.....안 되겠다 , 이런 녀석을 상대해봤자 피곤해질 뿐이다. 대화를 포기하고 유키히라의 옆을 지나

치려고 한 그때.

[선택하시오. ①“있잖아, 네 가슴 좀 만지게 해줘, 가슴.” ②“있잖아, 내 가슴 좀 만져줘, 가슴.”]

.....응 , 이상해. 이걸 이상해.

사람은 보통 이런 변태적인 선택을 강요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항한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그래 , 처음에는.

절대 선택지가 출현했을 때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머리가 아파진다. 이상.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처음에는 둔탁한 통증 정도로 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가 안쪽에서부터 죄어드는 것 같아지면서 , 상식을 벗어난 통증으로 발전한다.

두개골은 형태를 유지한 채로 안의 뇌수를 날려버리는 것 같다고 표현해야 할까. 그런 짓은 얼굴에 일자 상처가 있는 여자도 못할 것이다.

즉, 저항은 무리 , 무용(無用), 무위(無爲)다.

인간은 당연히 숨을 쉰다. 강아지는 당연히 말을 하지 못한다. 절대 선택지가 나오면 당연히 고른다.

그런고로.

“있잖아, 내 가슴 좀 만져줘, 가슴.”

그 대사를 내뱉은 순간, 유키히라의 눈썹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아마쿠사군, 지금 뭐라고?”

되묻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누구라도 귀를 의심하겠지.

“아니, 이건 말이야——.”

“혹시 , 나한테 너의 숨기를 만지라고 한 거야?”

“.....응? 지금, 뭐라고?”

무심코 내가 되묻고 말았다. 이 녀석 지금....., 숨가라고 한 건가?

“내가 묻고 싶은 건, 네가 ‘내 숨가를 만져줘!’ 라는 발언을 했냐는 거야.”

“아니....., 비슷한 소리는 했지만, 숨가라고 하지는——.”

“숨가라고 안 했어? 이상한걸, 나한테는 분명하게 숨가라고 들렸는데. 숨가라는 단어는, 절대로 잘못 들을 리가 없을 텐데....., 아아, 숨가라고 한 게 창피해서 숨기는 거야? 숨가는 그렇게 외설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당초 숨가라는건——.”

"네가 습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뿐이잖아!"

"인정할게. 그래도 들어봐. 너한테도 건잡을 수 없이 습가라고 외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거 아냐?"

"없어!"

"왜 없는 거야!"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이번만은 유키히라가 괴짜라서 다행이었다. 이런 선택지가 다른 여자애랑 있을 때 출현했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작년 반에서는 참담한 상황이었다. 여자아이 앞에서 그런 짓이나 이런 짓이나 저런 짓을 ,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행동을 강요받아서....., 아니, 울고 싶어질 뿐이니까 다시 떠올리는 건 그만두자.

어쨌든 이 절대 선택지는 나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고서 즐 거워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미소녀 게임에 비유하자면 , 어느 쪽을 선택하든 배드 엔딩으 로 직행인 내용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연애의 '연' 자도 구경하지 못했다.

딱히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 평범하게 (나를 보고 겁을 먹거나, 백안시하지 않고) 여자애랑 대화하고 싶을 뿐인데.....

그나저나 오늘은 평소보다 한층 선택지의 출현이 많은 데다, 내용도 자비가 없다. 얼른 자리에 앉

아서 얌전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유키히라의 옆을 총총히 지나치려고 한 그때.

[선택하시오. ①“있잖아, 네 숨가 좀 만지게 해줘, 숨가.” ②“있잖아, 내 숨가 좀 만져줘, 숨가.”]

.....필요 없다고. 이런 ‘흐름을 읽어봤습니다.’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속으로 불평을 해 봤자 거부권은 당연히 없다.

“있잖아, 내 숨가 좀 만져줘, 숨가.”

그 말을 들은 유키히라는 무표정인 채로 입을 열었다.

“미안. 그런 외설적인 단어를 내뱉는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너, 무슨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입이야. 틈만 나면 숨가라고 하는, 이 입이야.”

“네 사전에 일관성이라는 말은 없는 거야?!”

"내 사전에는 숨가라는 말밖에 없어."

"그럼 , 평생 숨가라고 외치고 다녀봐!"

"아마쿠사 군..... , 설마, 이런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으그아악!"

머리를 엉망진창으로 헝클었다. 안 되겠다....., 진짜로 상대 못하겠다. 아직도 농담을 덜 한 듯한 유키히라를 뿌리치고 , 내 자리로 향했다.

아직 흠름 시간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피로감이 느껴졌다.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응?"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우오윳!"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 , 아맛치다. 안녕!"

그 인물은 유리창 건너편에서 웃더니 기세 좋게 창문을 열어 젖혔다.

"토웃!"

뒤이어 창틀에 다리를 올리더니 특촬 히어로 같은 기합을 지르면서 교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유려한 검은 머리를 휘날리면서 가볍게 착지했다.

"너..... ,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교실 안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그녀, 유오지 오카는 힘차게 엄지를 세우고 말했다.

"하하, 생활지도 선생님이 현관에서 지키고 서 있기에 벽을 타 봤습니다!"

봤습시다라니..... , 대단한 높이는 아니니까 떨어져도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만, 애도 아닌데 생각이 났다고 해도 보통은 안 하지 않을까.

눈앞에 있는 소녀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윤기 있는 검은 생머리. 굴곡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이 가는몸매. 양갓집 규수 같은 분위기가 나는, 온화한 인상의 이목구비.

하지만 한 번 입을 열면 초등학생처럼 소란스럽고 , 표정은 어지러울 정도로 변화무쌍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을 반복한다.

학교 건물의 벽을 기어오른다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도 유오지라면 , '아아 , 그럴 만하지.' 라는 한마디로 넘어가고 만다.

"어라, 아맛치. 어쩐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인데. 무슨 일 있었어?"

유오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한계까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다.

"으....."

좀 더 남녀라는 사실을 의식해주었으면 싶었지만, 이 아가씨에게는 무리한 요구일까.

"그게, 아침부터 이것저것 있었거든....., 그보다 등에 멘 그 배낭은, 뭐야?"

유오지의 등에는 도대체 어디로 야반도주를 할 셈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질 정도로, 뽕뽕하게 부푼 배낭이 매달려 있었다.

"오, 잘 물어보셨습니다. 나하하, 이걸 밀수하려다 보니 현관으로 오지 못한 거야."

유오지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기뻐하면서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 무게를 메고서 벽을 기어오른 건가....., 도대체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란 말인가.

"이것 좀 봐봐, 우리 시제품이거든."

유오지는 배낭의 내용물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늘어놓았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 대부분에 각인되어 있는 마크는 'COG' 의 로고였다.

아직도 믿기 어렵지만, 이 유오지는 놀랍게도 세상이 다 아는 천하의 대기업 UOG 사장의 영애다.

UOG의 사업 내용은 식료품, 의류 및 화장품, 가전, 서적 등 실로 다양해서, UOG 관련 제품이 하나도 없는 집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거 , 기획 단계에서 기각된 건데, 상품개발부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았거든. 뭐라더라~ , 앞으로 의 기획에 참고가 되도록 젊은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듣고 싶대.”

유오지의 목소리를 듣고, 반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아무리 기각된 시제품이라고는 해도,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UOG의 제품에 흥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카, 그게 뭐야?”

제품을 제각기 손에 들고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내놓는 와중에 , 여자에 하나가 엄청나게 유독해 보이는 붉은색 병을 가리켰다.

“아아, 그건 말이야 , 권태기를 맞은 사모님을 위한 여성판 정력제 같은 거래.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모양이야.”

그런 걸 고등학생에게 의견을 물어서 어쩔 건데.....

“그게 말이야~, 효과도 좋고, 가격도 낮게 책정했는데도, 문답무용으로 기획 회의에서 기각됐다더라고~.”

“흐음, 왜 그랬을까.”

아무 생각 없이 병을 손에 들고 빙글 돌렸다. 엄청나게 화려한 로고로 된 상표명이 눈에 들어왔다.

'옹녀Z'

"응....., 일단 이름이 아웃이네."

“참고로 오늘 아침에 엄마 아침밥에 슬쩍 섞어봤더니, 갑자기 하아하아거리면서 ‘오카....., 여동생 갖고 싶지 않니?’ 라고 하던데.”

“너, UOG 사장 부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유오지의 어머니 유오지 쿄카는 20년 정도 전에 당대를 풍미 한 전 아이돌이다.

당시의 다른 아이돌들이 모두 하나같이 깽깽거리는 노선이 있던 것에 비해 , 그녀는 총명하고 이지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고 한다.

비즈니스계의 총아, 유오지 오마와의 결혼을 계기로 은퇴하고, 이후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피했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뉴스 같은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녀의 인상은 다른 어떤 말보다 쿨하다는 한마디면 충분했다. 친부모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인체 실험이나 다른 없는 짓을 해서 옹녀로 만들어버리는 유오지....., 아니 , 그 유오지 쿄카에게서 이 유오지가 태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뭐, 유오지 가의 수수께끼는 제쳐두고 , ‘옹녀Z’ 가 기각된 원인은 이름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무책임한 효과를 지닌 약물이 유통돼버리 면 , 일본 사회는 틀림없이 붕괴할 것이다. 각설하고 다른 상품에 시선을 던졌다. 구석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는 소형 프린터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그 기계의 가운데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뭉치가 끼워져 있었다.

“유오지 , 이건 뭐야?”

“응, 그건 말이지 , ‘다발이에요.’라는 이름의 유아용 완구인데 , 자기만의 지폐를 만들어서 노는 거야.”

과연 , 종이의 표면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 가운데에는 커다랗게 ‘지페’ 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지페 다발을 손에 들고 팔랑팔랑 넘겨봤다.

"오, 꽤 괜찮은..... , 응? 왜 진짜가 섞여있는 거야."

중간에 한 장 , 아무리 봐도 가짜가 아닌, 유키치 선생님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나하하 , 이거 엄청나게 고성능인데 , 내가 시험 삼아 만들어 봤더니 , 어쨌든 진짜랑 똑같이 되어 버렸어."

"사건이잖아!"

완전히 아웃입니다, 아웃.

"정말이지, 좀 더 제대로 된 건....., 오 , 이거 ‘인생 캔디’ 잤아."

인생 캔디는 UOG의 제과 브랜드 ‘유오지’ 의 롱런 상품이다. 테마에 따라 ‘~편’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이런 느낌이다.

‘연애 편 , 짝사랑 맛, 고백 맛, 천생연분 맛.’

각각 안타까움을 상징하는 신맛, 두근두근하는 미움을 표현한 강렬한 매운맛 , 가슴이 벅차오르는 진한 단맛으로, 구성은 엉망진창이지만, 맛이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소재와 가격을 낮게 책정한 것이 좋은 반응을 불러서, 또 하나의 히트 상품인 ‘애니멀 캔디’ 시리즈와 함께 인기를 양분하고 있다.

"이것도 말이지, 기각된 게 엄청 많다고 한탄하고 있더라고~."

유오지가 몇 개를 집어서 획 건네주었다.

"난봉꾼 편 , 양다리 걸쳐버렸네 맛 , 둘 다 임신해버렸네 맛, 칼 맞아버렸네 맛."

"마지막은 왜 귀엽게 말하고 있는 거야! 웃을 일이 아니잖아!"

'중간 관리직 편, 위아래로 끼어서 위통 맛 , 정리해고 맛 , 쉼에 길바닥에서 객사 맛.'

"너무 슬프잖아!"

'사후 세계 편 , 저승 선물 맛, 삼도천 맛,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 맛.'

"이런 걸 누가 사냐!"

'니트 편, 과연 맛, 내 노후는 맛 , 어떻게 되는 걸까 맛.'

"알 게 뭐야!"

'당첨이 나오면 하나 더 편, 당첨일까? 맛, 광일까? 맛, 바보가 여기 있네~.'

"바보 취급하는 거냐!"

그보다 이미 전부 맛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아무리 기각이라고는 해도 주력 상품조차 이 모양이라니....., 응?"

조금이라도 멀쩡한 걸 찾으려고 바닥을 훑어보는데, 구석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유키히라가 눈에 들어왔다.

뭘 하고 있나 살펴보니, '다발이에요.' 를 손에 들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어쩐지, 눈이 무섭다.

"유키히라, 왜 그래?"

"응, 아마쿠사 군, 이 장난감을 악용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양식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보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부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응, 나? 아니, 그런 건 무리야. 뭐, 나밖에 없다고? 어, 어쩔 수 없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

"그 연기는 뭐야! 아무도 부탁 안 했어!"

"칫....."

'칫' 이라고 했다. 지금 '칫' 이라고 했어, 이 녀석.

유키히라가 무표정으로 일어섰을 때, 유오지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 후라듯치다, 여어!”

유키 히라는 담담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 구더기 소녀.”

그 개그, 아직도 하는 거냐!

“응? 구더기? 아, 맞아, 구더기라고 하니까 말인데.”

유오지는 배낭 밑바닥을 부스럭부스럭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보다 ‘구더기라고 하니까 말인데.’라니.....,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듣는다.

“자, 이런 것도 있거든. 이것 참, 엄청난 우연이네. 먹어 봐, 후라놋치.”

유오지가 유키히라에게 내민 황토색 패키지의 표면에는 이런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애니멀 캔디 구더기 맛’

이게 무슨 기적이야!

“과연, 벌레와 관련된 재난이란 게, 이거였던 모양이네....., 개발자는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유키히라는 태연하게 받아들면서도 마지막에는 독설을 톡 내뱉었다. 뭐, 그 기분을 모르겠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구더기 맛이 뭐야. 이미 기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니잖아.

포장을 뜯은 유키히라는 사탕을 입에 넣고 , 잠시 동안 혀 위에서 굴리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진짜로 구더기라는 느낌이네."

"그건 또 무슨 감상이야!"

"감칠맛으로 매미 오줌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한층 더 좋은 풍미가 날 거야"

"안 나! 매미 오줌이 무슨 참기름이라도 되냐!"

탄죽을 걸면서 시선을 유오지에게 돌렸다.

"근데 그거..... , 먹어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 괜찮아. 과자에 보면 '딸기 맛' 이나 '멜론 맛' 같은 게 있지만, 딸기나 멜론 그 자체는 아니잖아? 자 , 아맛치도 하나 먹어 봐."

"그 , 그런 건.....가?"

.....이건, 뭘까. 맛이 없지는 않다. 결코 맛이 없지는 않지만, 그 뭘랄까, 텅텅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맛이다.

"이거, 도대체 뭐가 든 거야?"

유오지는 라벨을 쳐다봤다.

“잠깐 기다려 봐. 원재료는....., 아, 구더기 진액이래.”

“우에에에에엑!”

반사적으로 입 안에 있는 사탕을 뱉어버렸다. 그것을 본 유오지는 승리 포즈를 취하면서 재빨리 말했다.

“아맛치, 3초 안에 주우면 다시 먹을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아맛치, 방금 한 소리는 농담이야, 농담. 아무리 그래도 구더기 즙은 안 들어갔지~.”

유오지의 말을 들은 유키히라는 손뼉을 탁 쳤다.

“어머, 그거 참 훌륭한 벌레 농담이네.”

“그건 이제 됐어!”

큭....., 유오지의 표정으로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것 좀 보여줘.”

반쯤 강제로 빼앗아서 라벨을 확인했다.

'원재료명: 사정에 의해 기재할 수 없습니다.'

헉!

"유, 유키히라, 너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나보다 먼저 먹고 있었던 유키히라에게 물었다.

"어머, 아마쿠사 군, 고작 이런 일로 구더기처럼 꾸물꾸물하다니, 남자답지 못하네."

"아저씨 개그냐!"

"애당초 남이 준 음식을 뱉어 버리다니, 최악의 행위 아니야?"

"입에 티슈를 대고서 말해봤자 설득력 없거든요, 유키히라 씨."

"입덧이야."

"좀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라!"

"아하하, 둘 다 들어봐. 세상에는 구더기가 들어간 치즈도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거 이미 들어 있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리를 지르는 내 목소리가 약간 뒤집어졌다. 도대체 오늘은 아침부터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는

지 모르겠다.

".....역시 저 셋이 모이니까 엄청나네."

그때 들린 누군가의 중얼거림에 내 귀가 종긋하고 반응했다. 유오지와 유키히라, 그리고 내가 하나로 묶이는 항목이라면, 그것밖에 없다.

"제길, 인정 못해..... 내가 그런 데 끌 리 없어."

"나하하, 아맛치도 말이야, 슬슬 포기하고 자신이 '거절 5' 라는 걸 받아들여."

내 어깨를 스스럼없이 툭툭 두드리는 유오지가 그 꺼림칙한 단어를 입에 올렸다.

이곳 세이코 학원에서는 매년 전기와 후기, 두 번에 걸쳐서 인기투표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남자를 포함한 미인 대회 같은 것으로, 투표를 통해 세 학년, 총 마흔다섯 개의 반 중에서 남녀 각각 베스트5를 뽑는다.

이 정도 인원수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에 들어간 사람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데다, 신문부와 방송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교내 인지도는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그늘에는 그림자 순위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꺼림칙한 것이 존재한다.

용모는 빼어나지만, 성격이나 행동에 거시기한 부분이 많아서 연애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남녀 다섯 명씩의 소외받은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거절 5' 이다.

유키히라는 저런 식으로 거시기하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유오지는 이런 식으로 거시기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인인 나는 그렇지 않다.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이 둘하고는 달리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한탄해봤자, 한 번 붙은 칭호는 최소 반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덧붙여서 학년말인 3월에 집계된 순위에는 당시의 3학년도 투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
신학기인 5월 현재 교내에 남아 있는 '거절 5' 는 남녀를 합해서 아홉 명이다.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 명이 이곳 2학년 1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덤으로 공식 순위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 2학년 1반이 저주받은 반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책임의 3분의 1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

“아맛치도 입만 안 열면 멋있는데 말이야.”

“아니 , 너한테만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그래 , 솔직히 말하자면 내 외모는 객관적으로 봐서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중학생 때는
고백이나 러브레터를 받는 게 드문 일도 아니었으니 , 인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을 눈앞에 둔 작년 3월 , 내 인생은 변해 버렸다.

그렇다. 이 저주받을 절대 선택지가 나에게 닥친 결과, 돌발 적인 기행을 강요당하는 처지가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5월 현재, '거절5' 라는 최악의 꼬리표가 붙어 있다.

그러나 내 이상 행동은 어디까지나 절대 선택지라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정말로 머리에 나사가 빠진 유키히라나 유오지와는 달리, 아마쿠사 카나데라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성격이다. 그래 , 절대 선택지만 없다면—.

[선택하시오. ①옷통을 벗고 일본 남아처럼 소리친다. ②아랫도리를 벗고 아마존 전사처럼 소리친다.]

너 진짜장난 치냐!

왜 지금 이 흐름, 이 타이밍에 튀어나오는 거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그리고 아마존=아랫도리 노출이라니, 완전히 편견이잖아!

.....네, 평소처럼 무시쥬. 할게, 할게, 한다니까요. 하면 되잖아.

나는 ①을 선택해서 교복을 잡고 머뭇거리면서 벗기 시작했다.

"우와, 저것 좀 봐."

서글픈 사실은 여자애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얼굴을 붉히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아마쿠

사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새로운 반에서, 돌발적으로 옷을 벗어도 이상할 것 없는 녀석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이 사실.....

그 슬픔을 간신히 떨쳐내고 무사히(?) 옷통을 벗는 나. 어떠냐, 선택지? 이걸로 만족했냐.

"큭....."

하지만 NO를 의미하는 두통이 덮쳐 왔다. 아무래도 일본 남아처럼 소리친다는 부분이 모자란 것 같다.

"으하하, 이것이 대장부의 기상이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일단 호쾌하게 말해 봤다.

두통이 시원하게 사라졌다..... 이봐, 이거면 되는 거야?

"여어."

그때 교실의 앞문을 열고 최악의 타이밍에 선생님이 들어왔다.

옷통을 벗고 승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나와 눈이 딱 마주쳤다.

"너....., 뭐 하냐."

2학년 1반 담임 , 도라쿠 우타게. 아무리 봐도 초등학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체형과 사랑스러운 외모에 비해 , 그 언동은 상스럽고 폭력적이다.

기본적으로 느슨한 분위기의 세이코에서 그녀가 내뿜는 불량배 오라는 이질적이었다.

"아니, 선생님 , 이건 복잡한 사정이....."

"흐~음, 원데. 말해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요."

"누가?"

".....머릿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요."

이건 아니다 ,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쪽으로 좀와 봐."

우타게 선생님은 그 작은 손바닥으로 손짓했다.

"정좌."

"아니, 일단 옷부터 입 으면 좋겠는데요—."

"닥쳐."

".....네."

무릎을 꿇자마자 먹살을 잡혔다.

"특별 지도야. 다른 교실로 가자."

"아야야, 아파요 , 아프다고요!"

우타게 선생님은 반장에게 대신 출석을 부르라고 명령하더니, 그대로 니를 끌고 문으로 향했다.
도대체 그 몸의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옷통을 벗은 채 복도로 끌려 나갔다.

3

끌려 간 곳은 학생 지도실이였다.

우타게 선생님은 조그마한 몸을 뒤로 젖히고 의자에 앉아서 나른하게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옷통을 벗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옷 입을 틈도 안 줬으니까 그렇죠!"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른 물어 봐. 난 한가한 몸이 아니거든."

자기가 물어본 주제에 완전히 작정하고 무시하더니,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렸다.

"좀 봐주세요. 아니,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죠?"

"크큭,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선택지가 나왔지?"

.....역시 그랬군.

우타게 선생님은 어떤 이유로 내 절대 선택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단 한 명뿐인 사람이다.

"그게 옷통을 벗든가 아랫도리를 벗으라고....."

".....너, 그래서 위를 고른 거야? 정말이지, 유머가 부족한 녀석이네."

"거시기 다 내놓고 유머라고 웃어넘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문제없어. 최악의 경우에는 네가 퇴학당할 뿐이니까."

"완전 문제죠!"

"세상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지."

“눈앞이잖아요! 선생님 반 학생이잖아요!”

큭....., 왜 내 주변에는 학생이고 교사고, 이런 괴상한 사람 밖에 없는 걸까.

“좀 진지하게—어라, 선생님?”

우타게 선생님은 조금 전까지 보였던 장난스러운 태도를 바꾸더니 표정을 흐렸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렇고....., 여전히 지독하네.”

“선생님.....”

그래, 무엇을 숨기랴. 눈앞에 있는 로리 교사는 예전에 절대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이 절대 선택지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 가는 성질이 있는 모양으로, 몇 대 전이 우타게 선생님이요 현재 보유자가 나인 것이다.

왜 나한테 옮겨 왔는지, 옮겨 가는 조건은 무엇인지 캐물어도 선생님은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야!’ 라든가, ‘귀찮아!’ 라면서 얼버무렸고, 그 결과 지금에 이르렀다.

걱정하는 기색이 사라진 우타게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새로운 분위기로 돌아와 있었다.

“그나저나, 이제 가도 돼. 그 상황에서 아무 말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형식적으로 끌고 온 것뿐이니까. 뭐, 지금까지처럼 힘닿는 데까지는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 봐.”

비밀주의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유일한 이해자인 이 사람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담임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타게 선생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퇴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학이나 자택 근신을 당해도 이상할 것 없을 정도의 기행은 여러 번 했다고 생각한다.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싫어진다.

“아 , 맞아 ,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선택지를 화제로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떠올랐다. 오늘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 쇼콜라라는 정체 모를 생물에 대한 것이다.

절대 선택지에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유자였던 우타게 선생님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오늘 등교하는 도중에 이상한 미소녀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요—.”

우타게 선생님은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내 어깨를 툭 두드렸다.

"불쌍하게도....., 마침내 2차원과 3차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아니 , 아니, 아니거든요.”

분명 스스로도 한없이 수상쩍은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응? 너, 얼마 전에 ‘이 미소녀 게임은 같은 캐릭터를 백 번 클리어하면 캐릭터가 화면에서 튀어나와서 , 그 애한테 프러포즈할 수 있어 , 후히히!’ 라고 즐거워하면서 말했잖아.”

"안 했어요! 선생님, 기억력 정상이에요!?"

"어라, 백한 번이었던가?"

"정상이냐고 한 건 거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후히히, 지성여!' 였던가?"

"그러니까 그게 핀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한 말 전부 통째로 날조잖아요!"

작년부터 줄곧 생각한 것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교사인 것 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선 사람의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

"뭐야 너,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하고..... 설마."

우타게 선생님은 연극조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밀실에 있다는 걸 빌미로 나한테 손을 댈 공중이구나."

"아니 ,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 선생님."

"그렇지만 너 , 이런 대낮부터 옷통을 벗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 이 로리콘."

"누가 로리콘이에요? 자기 나이를 좀 생각해요!"

"난 열두 살이야. 훌륭한 로리콘이잖아."

"초등학생 같은 거짓말 하지 마요!"

"시끄러우니까 깹깹거리지 마. 어디 보자, 뭐였더라 , 그 , 너....."

".....선생님 , 설마 제 이름 잊어버렸어요?"

"멍청아, 교사를 알아보지 마. 그럴 리가 없잖아. 어디 보자, 아마....., 아마....., 아마....."

"작년에도 선생님 반이었는데 말이죠!"

"하하, 미안 , 미안. 농담이야 , 아마카스."

"진짜로 틀렸잖아요!"

"풋 "

"왜 (웃음) 같은 느낌으로 웃는데요!"

안 되겠다. 완전히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

"그보다 나는 한가한 몸이 아니라고 했잖아. 빨리 이야기해."

"아니, 이야기를 못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 때문인데요....."

투덜거리면서도 원래 화제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미소녀가 말인데요."

"네, 네, 그 하늘에서 떨어진 망상 소녀가 말이죠."

큭....., 엄청나게 열 받는 말투다.

"절대 선택지를 선택한 결과, 떨어진 거라서——."

"뭐라고?"

선생님의 안색이 변했다.

".....그렇군."

선생님은 다시 근심 어린 표정을 짓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표정을 보니까 뭔가 짚이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우타게 선생님은 부정하지 않았다.

“뭐 그렇지. 하지만 이건 내가 가볍게 입 밖에 낼 만한 일이 아니야.”

애매한 말투. 하지만 우타게 선생님의 눈은 진지한 빛을 띠고 있었다.

“뭐,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네가 절대 선택지에서 벗어나 기위한 준비가 갖춰졌다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내 말을 가로막는 듯한 타이밍으로 1교시의 예령이 울렸다.

“자, 시간이 됐어. 쫘쌐게 교실로 돌아가.”

“아니, 선생님.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이상 해줄 말이 없어.”

“아니, 그래도.....”

절대 선택지에 관련된 일이라면 나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끈질기네. 자꾸 시끄럽게 굴면, 목젓을 거세해버린다.”

“표현이 이상하잖아요!그보다, 갑자기 무슨 문자를 보내요?”

“음~, 이거? 유키히라의 휴대 전화로 앞으로 1분 안에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윗도리를 태워버리라고 보내는 건데.”

"무슨 짓이에요!"

보통은 시킨다고 그런 짓을 하지는 않겠지만, 유키히라라면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아니 ,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는 않겠지.아니, 할지도 모른다.

"웃차, 송신. 선생한테 찌르면 죽어버릴 거야. 알겠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괜찮겠어? 앞으로 50초 남았는데."

"제, 젠자아아아앙!"

나는 학생 지도실 문을 열고 전속력으로 복도를 달렸다.옷통을 벗은 채로.

"으~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쇼콜라라는 생물과, 내 절대 선택지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타게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아서 오전 중에는 수업을 들을 정신이 아니었다.

그 상태는 점심시간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친구 몇 명에서 책상을 붙이고 점심을 먹었지만 , 대화 내용은 완전히 귓등으로 들었다.

"응?"

그때 칠판 위에 달려 있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생각이 중단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이코 데이크래시 시간입니다.」

아, 벌써 이런 시간인가.

이 프로그램은 매일 점심시간에 방송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 MC와 코너가 날마다 바뀌는 형식을 취한 , 상당히 그럴듯한 방송이 다.

뭐 ,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대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기분 전환 삼아서 방송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했다.

「자, 월요일은 교내의 유명인을 초대해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 초인기 코너, ‘독의 저택’ 입니다.」

MC 여자아이의 경쾌한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은 2학년 1반에서, 놀랍게도 이 두 분, 유오지 오카 씨와 유키히라 후라노 씨가 와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실 안을 둘러보니 확실히 그 녀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얏호~, 안녕하세요. 유오지 오카입니다~, 뽀빠라밤~.」

「안녕하세요. 유키히라 후라노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엄청난 고양이 상태인 유오지와, 어째서인지 모리 신이치풍으로 인사하는 유키히라. 이 둘을 데리고 교내 방송이라니....., 꺼림칙한 예감밖에 들지 않는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두 분은 안타깝게도 작년도 후 반기의 '거절 5'에 선출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하잘것없는 심경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MC는 갑자기 무례한 질문을 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 코너는 S느낌이 나는 진행자가 독설을 퍼부으면서, 보통은 건드리지 않는 부분까지 서슴없이 파고드는 점이 재미있는 코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오, 이 버튼은 뭐지?」

「자, 잠깐만요! 멋대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덜컥. 당황한 MC가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다.

「엇, 그래도 방송 중에는 이 근처의 기계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했는걸.」

「그, 그러니까 더 안 되죠. 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만져 달라는 말 아니었어?」

이거 개그 프로그램 아니거든!

과연 유오지다. 전교생이 듣고 있는데도 안정감 있는 자유로움을 선보이고 있다.

「그,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유키히라 씨, 부탁드립니다.」

MC가 말을 걸자 유키히라는 엄청난 연극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 참, 들어 봐. 그, 뭐라고 하지? 나는 아무 생각 없었거든. 응, 주변 사람들이 멋대로 신을 내더라고. 사퇴해도 별로 상관은 없었는데,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모처럼 뽑아준 사람 들한테 미안하다고 할까....., 저기, 창피하니까 그만해도 될까?」

도대체 왜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저기.....」

MC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할 말을 잃었다. 나라면 이 시점에서 진행을 포기했겠지만,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하고 작게 헛기침을 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행을 계속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에게, '거절 5' 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쓸데 없는 소리밖에 안 하겠지만요.」

일부러 도발적인 말을 해서 본심이나 예민한 화제를 끌어내는 것은 이 MC가 자주 쓰는 방법이다.

하지만 유오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응~, 잘 모르겠지만 '허나 거절한다!' 라는 느낌?」

그거 사용법 잘못됐잖아! 거절당하는 건 너라고!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받은 유키히라는,

「반년 후, 이 높이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왜 고자세냐!

「.....과연, 역시 두분 모두 개성적이네요.」

둘 다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한지,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묻어나는 MC는 화제의 화살을 돌렸다.

「그리고 보니, 두 분의 반에는 또 한 명, '거절 5' 인 분이 있지요. 어디 보자, 아마쿠사 카나데였던가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완벽한 기습 공격이었다.

「네, 하지만 아마쿠사는 얼굴은 멀쩡해도 뇌에 좀 문제가 있어서 대중 앞에 내놓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너한테만큼은 듣고 싶지 않아!

「아하하, 오늘도 갑자기 교실에서 옷을 벗었으니까 말이야.」

아니, 확실히 벗긴 했지만....., 유오지 씨, 그걸 말해버리는 겁니까?

「교실에서 갑자기 옷을 벗다니 , 아마쿠사 씨는 노출광인가요?」

「응? 아닐걸? 그냥 돌발적으로 벗고 싶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해.」

그게 노출광이잖아!

「아마쿠사는 이미 모자이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뭔가에 중독된 사람같이 말하지 마!

「반 친구로서, 아마쿠사의 앞날이 걱정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입을 닫아!

「아 ,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맛치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니야?」

유오지....., 이 흐름에서 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모처럼 소개해 주셨으니, 다음 주에는 그 최악의 저 질남인 아마쿠사 카나데 씨를 게스트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MC는 가볍게 흐름에 편승했다. 게다가 혼란을 틈타서 엄청난 험담을 했습니다만.

「네 , 그러면 바로 전화 통화를 해 보죠.」

이 프로그램은 그 주의 게스트가 지인을 소개한다는 방식 , 요컨대 낮에 하는 모 방송을 베낀 구성이지만 이런 건 보통 사전에 본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응?"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마쿠사 카나데 씨인가요.」

흐름상 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누르자 , MC의 발랄한 목소리가 날아들어 왔다.

"하아..... , 뭐, 그렇죠."

건너편에서 스피커폰 모드를 켜는지, 내가 말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스피커에서도 진저리를 내는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즉 ,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전교생에게 바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오늘 방송 , 듣고 계셨군요.」

"네 , 뭐."

괜찮다. 적당히 모범생 같은 대답을 해서 원만하게 거절하면 문제는 없다.

「자 , 아마쿠사 씨는 느닷없이 옷을 벗는 왕 변태라는 모양인데요, 왜 그런 완전 기분 나쁜 행위를 하게 되신 걸까요~.」

큭, 엄청나게 짜증 나는 말투다. 하지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침착해라. 맞받아치면 상대가 노리는 대로 된다. 지금은 어쨌든 무난하고, 트집 잡힐 거리가 없는 대답을——.

[선택하시오. ①"우헤헤, 사실은 아랫도리도 벗고 싶었는데요." ②"게헤헤, 지금 무슨 색 팬티 입고 있어?"]

.....집에 가도되나요?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나와 버린 이상은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헤헤, 사실은 아랫도리도 벗고 싶었는데요."

울먹거리면서, 겨우 말을 내뱉었다. 당연히 내가 한 말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스피커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다.

이제는 MC의 역량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개그처럼 받아넘겨 준다면 가벼운 피해로 끝날 것이다——.

「.....자, 이제 두 분에게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 볼까요.」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잠깐, 기다려어어엇!"

소리를 쳐 보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다.

".....아마쿠사 , 역시 넌 대단해."

친구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남자들은 실소나 쓴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여자들은 완전히 질색하고 있었다.

위는 그렇다 쳐도, 아랫도리는 그녀들이 웃어넘길 수 있는 한계선을 돌파해버린 것 같았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변명을 하려고 손을 뻗은 순간. 여학생 전원이 마치 잘 통솔된 군대처럼 일제히 내 눈길을 피했다.

"아하하....., 이 세상에 신 따위는 없어."

스스로 생각해도 위험한 말을 하면서 책상에 엎드렸다.

"이제 싫어 이제 싫어 이제 싫어 아아 그렇구나 이건 꿈이야 꿈이 틀림없어 나는 분명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입원해 있고 거기서 꿈이야 하지만 그런 것치고는 감각이 생생하네 그렇구나 여기는 평행세계구나 왜 있잖아 만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그거야 지금의 나는 나지만 진짜 내가 아닌 비슷하지만 다른 존재인 거야 그야 그렇잖아 그렇지 않다면 상식 있는 사람인 내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 여자애들한테 백안시당할 리가 없으니까 후후후."

「_____」

스피커에서는 방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 자신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새어 나오는 주문 같은 중얼거림에 가로막혀서,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윽고 의식이 점점 득해진 나는 현실도피라는 바다로 잠겨들었다.

"헛!"

「호오....., 그렇군요..... , 과연.」

몇 분 뒤, 내가 겨우 이쪽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귀에 들어온 소리는 엄청나게 진저리를 치는 MC의 목소리였다.

「그, 그러면 슬슬 마칠 시간이 가까워졌으니 , 오늘은 이쯤에서.....」

그 목소리에서는 이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절절히 느껴졌다. 내가 잠시 여행을 떠난 사이에 유오지와 유키히라가 어떤 토크를 전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아무래도 독설가인 그녀에게도 이 두 사람의 상대는 버거웠던 모양이다.

「어라 , 우리 집 존의 엉덩이에 난 종기 이야기 ,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었냐!

서운해하는 유오지의 뒤를 이어서 , 유키히라가 당당한 목소리로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 괜찮을까?」

「네, 네, 뭐죠?」

MC가 경계하는 기색으로 되물었다.

「그 전에 당신의 그 캐릭터, 이제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해.」

이 아가씨, 뭔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독설을 장점으로 삼고 있는 모양인데, 청취자도 슬슬 익숙해졌거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나저나 유키히라의 이 말투, 평소와 다름없이 억양이 없는 느낌이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화가 났나?

「그나저나 당신은 오늘, 내 가슴이 미발달됐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지....., 그것도 세 번.」

내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동안에 그런 전개가 펼쳐졌던 것인가.

분명 유키히라의 가슴은 빈말로도 풍만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긴 했지만 그건 장난이라고 할까, 개그의 범위에서.....」

「개그? 미안하지만, 웃음이 헤폰 나조차도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니, 웃음이 헤프다니, 너.....

「어쨌든, 남의 습가를 건드리고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니, 그 말만 들으면 뭔가 다른 의미로 들리는데....., 그리고 습가는 좀 자중해라.

「그래서 본론이야. 타성에 젖은 내용을 줄줄 흘려보낼 뿐인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신시대의 기획을 생각해. 이름하여 '암돼지MC의 모에 돼지 호이호이' .」

그게 뭐야....., 덧붙이자면, 모에 돼지라는 것은——정의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애니메이션이나 만화세 나오는 미소녀들을 보면서 몸부림치는 오타쿠계 남자들을 부르는 멸칭이다.

「주인님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암돼지가 된 당신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다양한 추태를 보여준다는 살짝 야한 기획이야.」

심야 라디오라면 몰라도, 낮에 하는 교내 방송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 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학교 방송인데요.」

MC는 나와 거의 같은 생각이었다.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암돼지.」

MC가 갑자기 암돼지 취급을 당했다.

「자 , 그러면 어리석은 독설 꼬맹이를 진정한 암돼지로 조교하는 것부터 시작할까.」

덜컹,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다.

「저 , 저기, 유키히라 씨? 어쩐지 눈이 무서운데요.」

MC는 완전히 겁을 먹었다. 그 목소리에 독설 캐릭터의 자취는 눈곱만큼도 남아 있지 않았다.

「유, 유오지 씨,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고 있어?!」

「쿨~.」

진짜냐....., 얼마나 무신경하면 생방송 중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야. 게다가, 네가 존의 엉덩이에 난 종기 이야기를 하다 만 뒤로 , 아직 1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후아암....., 어라 , 방송 벌써 끝난 거야?」

「아마. 마침 잘 일어났네, 유오지. 이 암돼지를 좀 잡고 있어 줄래?」

「응?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잇.」

「어? 어, 어느 틈에 뒤로!? 이거 뻘!」

MC는 구속당한 모양이다. 유오지의 신체 능력은 장난이 아니니까 평범한 여자아이는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잠깐만, 아훗, 유오지 씨, 뭐 하는 거예요!」

「응? 이유는 모르겠지만 겁을 먹은 것 같아서 긴장을 풀리는 마사지를 좀 했는데..」

「아니, 그런 건 안 해도 되니까 놔주세요....., 잠깐, 하지 마세요, 싫어, 까악!」

갑자기 흘러나온 MC의 교성에, 그때까지는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던 남자들도 움직임을 멈추고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

「우쭈쭈, 옆구리를 쿡!」

「싫어, 잠깐, 거긴....., 안 돼, 왜, 기분이 좋지,앙..」

이건....., 야하다. 교내 방송으로서는 완전히 아웃이지만, ‘유오지 힘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오오~,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드문데~. 아하하, 재미있다 재미있어..」

유오지는 신이 나서 계속했다.

「아....., 그만....., 그만!」

「소용없어, 암태지. 이 방송실은 완전한 밀실. 울고불고 해봤자 밖에서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

너, 도대체 어디 나오는 악역이냐.....

「히이..... , 히이....., 후우.....」

수십 초에 걸친 조교(?)가 끝났을 때, MC인 여자애는 이미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 그녀에게 유키히라는 담담히,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만족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치고는 꽤 좋은 목소리로 우는걸. 그렇게 하는 거야 , 암돼지.」

단언해도 좋다. 다음번은 절대로 없다.

「아하하 , 살짝 지나쳤나? 전신의 힘이 다 빠졌는걸. 영양 드링크 같은 건..... , 없네~. 아, ‘옹녀Z’는 있는데, 마실래?」

그만뛰어어엿!

「이건 이미 속행 불능이네. 어쩔 수 없이 내가 마무리 짓도록 하지..」

마이크에서 유키히라의 연극조인 목소리가 울렸다.

「그런고로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 ‘암돼지MC의 모에 돼지 호이호이’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특별 방송 ‘유키히라 후라노의 숨가가 B 이상인 암돼지는 전부 멸종되면 좋을 텐데’도 같이 방송될 테니까, 해당되는 아가씨들은 숨가를 씻고 기다려——.」

뚝

갑자기 목소리가 끊겼다. 그 직후, 스피커에서는 부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흔히 말하는 방송 사고라는 거 아닐까.

지독하다. 정말 지독하다. 이러니까 2학년 1반은 학교에서 가장 저주받은 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다.

반 친구 몇 명의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네가 동료니까 어떻게 좀 해 봐.'라는 느낌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애들아,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원래 그쪽 사람이야. 이 저주받을 절대 선택지 때문에 아주 살짝, 정말로 살짝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 나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 남자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의 외침이 전해질 리가 없었다. 미묘하게 거북한 분위기 속에서, 남은 도시락을 주섬주섬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즈음, 유오지와 유키히라가 돌아왔다.

“앗호~, 다녀왔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 다 교무실에서 살짝 꾸중을 들었다는 모양이다.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유키히라는 담담한 표정으로 태연하게 말했다.

"이상한걸. 이 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암돼지 연발을 자유라고는 안 하지!"

"가벼운 돼지 농담이야."

"그러니까 그 농담 시리즈는 도대체 뭐냐고!"

"가벼운 블랙 유머야."

"블랙 유머 같이 말하는 이유는 뭔데!"

"덧붙여서 흑돼지 농담이라고 하면, 블랙 블랙 유머가 되어 버려서 발음하기 어려워져."

"진심으로 아무래도 상관없어!"

"뒤쪽에 있던 방송부원 애들도 꿀꿀거리면서 불평을 했어."

"억지로 돼지에 갖다 붙이지 마!"

유키히라에게 탄죽을 거는 것이 일단락되었을 때 , 유오지가 내 소매를 짹 짹 잡아당겼다.

"있잖아, 아맛치. 이것 좀 봐!"

그 손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프린트해 왔어!"

첫 번째 장. 가운데에 MC 여자애, 양 옆에 유오지, 유키히라라는 흔한 구도의 사진이었다. MC 여자애가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점이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다.

그보다 그런 짓을 한 다음에, 용케도 같이 사진을 찍어줬구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장.

"유오지. 이게, 뭐야?"

MC인 여자애가 황홀한 표정을 짓고, 다리를 M자로 한껏 벌리고 있었다. 스커트 안쪽은 보이지 않는 앵글로 찍었지만, 참담한 상황이었다.

"아하하, 그 뒤에, '옹녀2' 를 쫓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

"진짜로 그냥 미약일 뿐이잖아!"

그리고 세 번째 장. 이건 뭐지? 아마 방송부의 스태프인 듯한 남자애 넷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얼굴이 생기를 잃은 흠빛이었다.

"유오지,이건 뭐야?"

"응, 모두에게 '인생 캔디'의 '사후세계 편'을 나눠줬거든."

"그거 만든 녀석, 지금 당장 잘라버려!"

“자자, 보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오지가 자신만만하게 발표하는 초등학생처럼 눈을 반짝반 짝 빛내면서 손을 들었다.

“네 , 해보세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재촉했다.

“있잖아, 선입관 없이 봐줬으면 해서 상품개발부 사람이 만든 거라고 했는데 말이야. 실은 오늘 가지고 온 시제품.....”

뭘까. 유오지가 말할 때 이렇게 뜯을 들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전부 내가 만들었어!”

“너였냐!”

뭘,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 오늘 새삼 실감했다.

유키히라 후라노와 유오지 오카.

이 녀석들은 거절을 당해도 싸다.

"후우....."

집 현관까지 도착하자 무의식적으로 한숨이 새어 나왔다. 지쳤다....., 오늘은 어쨌든 지쳤다. 절대 선택지 러시에, 진절머리가 나는 유키히라, 유오지 콤비까지.

하지만 이 문을 열어도, '어서 오렴.' 이라며 맞아 주는 가족은 없다.

아버지의 전근에 어머니도 따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쿠사 가에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이다. 흔히 말하는 미소녀 게임 상태인 것이다.

'이제부터 저녁 준비를 하려면 힘들겠네.' 라고 주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었다.

"쿨~."

.....뭔가 있다.

"쿨~."

.....바닥에서 뭔가가자고 있다.

자고 있다. 엄청나게 자고 있다. 우리 집 복도에서 뭔가가, 엄청나게 기분 좋게 자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언제지? 나는 언제 메다 파니에 걸린 거지?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 였지만, 몸이 멋대로 움직였다. 허리를 숙이고 그 생물의 몸을 세게 흔들었다.

그 녀석은 눈을 비비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잠이 덜 깬 눈으로 봤다.

"후뮤....., 누구세요?"

"내가 묻고 싶다!"

하지만 그 정체는 알고 있었다. 풍성한 금발 , 작은 체구, 나른한 느낌의 목소리..... , 틀림없이 아침에 만난 쇼콜라라고 했던 생물이다.

"아, 카나데 씨잖아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어 , 으응, 다녀왔어....., 아니, 다녀왔어가 아니지!"

미소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천진난만해서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고 말았다.

침착해라.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 이다.

"우선....., 우선, 말이야.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 녀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캐묻기 전에 물리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조금 전에 쓴 열쇠는 분명히 내 주머니에 들어 있고 보조키는 집 안에 두었다.

쇼콜라는 생긋 웃으며 말했다.

“특수한 점토로 본을 떠서 업자에게 보조키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완전히 범죄다.

“카나데 씨, 왜 그러시죠? 안색이 안 좋은데요?”

“질색하고 있는 거야! 너의 행동에 질색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다. 이 녀석은 단순한 불법 침입자다. 느긋하게 캐묻고 있을 때가 아니다. 힘으로라도 쫓아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심하고 손을 뻗은 순간—

“저는 카나데 씨의 ‘저주’ 를 해제하는 걸 도우러 왔어요.”

“뭐.....라고?”

내 움직임이 멈췄다.

“저주라면 혹시....., 절대 선택지를 말하는 거야?”

어째서인지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예상대로 쇼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일까....., 분명 우타게 선생님이 선택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가 갖춰졌다고 하기는 했지만.....

“자자,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죠.”

“아니, 왜 네가 그 말을 하는 건데.....”

수상쩍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상쩍다. 하지만 절대 선택지를 해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 바로 쫓아낼 수는 없다.

“그럼 가죠!”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신이 난 쇼콜라의 뒤를 따라서, 거실로 들어갔다.

“.....이건 뭐야.”

절묘하게 맞춘 실내 온도. 코를 간질이는 홍차의 향기로운 냄새. 정성스럽게 만든 아기자기한 모양의 쿠키들. 거실에는 최고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카나데 씨가 슬슬 돌아올 것 같아서 준비해 두었어요!”

만약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아내였다면 무척 행복했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남이 이런 말을 하니 괜스레 꺼림칙하기만 했다.

“자자, 사양 말고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나는 쇼콜라가 원하는 대로 소파에 앉아서, 김이 나는 홍차를 집어들었다.

“어떤가요?”

“뭐, 맛있네.”

쇼콜라는 기뻐하면서 얼굴을 활짝 폈다. 그와 동시에 머리의 꼬리털도 쫘긋 섰다.

“그렇죠, 이거 엄청 고급품이거든요.”

이거 사온 사람이 나니까 알고 있는데요.

뒤이어서 쇼콜라는 쿠키가 담긴 접시를 내밀었다.

“어떤가요?”

“뭐, 맛있네.”

얼굴이 다시 확 밝아졌다.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간 거예요.”

이거 구운 사람이 나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 본론으로 들어가자."

나는 쇼콜라를 반대쪽 소파에 앉으라고 재촉했다.

"네, 무슨 일이죠?"

쇼콜라가 탈썩 앉는 것을 기다린 뒤, 입을 열었다.

"서론은 넘어가자....., 너 , 절대 선택지를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야?"

"네!"

쇼콜라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인가....., 정말로 없앨 수 있는 건가? 이 일 년 동안, 계속 나를 괴롭힌 저주스러운 이 녀석을?

"부탁이야, 가르쳐 줘!"

나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반쯤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나데 씨, 진정하세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야!?"

나는 절박하게 질문했지만 쇼콜라는 철저히 마이페이스로 말했다.

"신님이요!"

".....네?"

막간 어떤 가능성의 이야기1

네, 그때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반 친구인 Y히라 씨한테 '있잖아, 네 가슴 좀 만지게 해줘, 가슴!' 이라는 소리를 했는걸요.

물론 교실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죠. 그런 와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한 번 말했어요. '있잖아, 네 가슴 좀 만지게 해줘, 가슴!' 이라고요.

뭐, 처음부터 그 사람은 돌발적인 언동을 보일 때가 많긴 했지만요....., 역시 뮤지션이 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과는 조금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만 그때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이상할 정도로 이성의 가슴에 집착을 하게 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Y히라 씨에게 성희롱을 했던 그때가 '카나델 카나데' 가 탄생하는 순간이 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이상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말인가요? 네, 잔뜩 있죠. 예를 들면, 교실에서 갑자기 옷통을

벗——.

데뷔곡 '반짝☆가슴 메모리얼' 이 메가 히트하고 있는 신진기에 뮤지션 , 카나델 카나데 씨의 특집 기사에 관한 취재 자료.

고등학생 시절 동급생의 술회이지만, 이후의 에피소드가 지나치게 저속하기 때문에 기각.

제2장 유키히라 후라노의 진실

"쿠울~."

그 소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기분 좋게 숙면하고 있었다.

아무리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 안까지 들어왔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도 그녀는 전혀 눈을 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므후후....., 므냐."

나는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빨래와 아침밥 준비까지 끝내고 왔건만, 왜 얹혀사는 이 녀석은 태평스럽게 자고 있는 걸까.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이 쇼콜라라고 하는 정체 모를 생물이, 우리 집에 살게 된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신.....이라고?"

"네, 맞아요."

신? 이 녀석은 느닷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평소라면 코웃음을 쳤겠지만, 쇼콜라의 눈동자는 순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장난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 카나데 씨. 안 믿는 눈치네요."

"아니, 갑자기 신이라니, 그게 무슨....., 응?"

그때 내 말에 맞춘 것처럼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다. 주머니 에서 꺼내서 확인해보니, 보낸 사람의 이름난에는 '신' 이라고 쓰여 있었다.

신? 나는 그런 이름을 저장한 기억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타이밍....., 묘한 불쾌함을 느낀 나는 제목이 '저주 해제 미션'인 그 문자를 열어 봤다.

[유키히라 후라노를 진심으로 웃게 만들어라. 기한 5월 8일 (수).]

이게 뭐야? 유키히라? 왜 그 녀석의 이름이 나오는 거지? 장난이라고 해도 도무지 의미를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의문이 머릿속을 휘젓는 와중에, 이번에는 전화가 온 것을 알리는 멜로디가 울렸다.

“아, 아마 신님 이걸 전화일 거예요.”

명랑하게 말하는 쇼콜라의 목소리를 듣고 화면에 시선을 떨어뜨리자, 그곳에는 조금 전과 똑같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자신을 등록하지 않은 상대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설마....., 수화기 건너편에 있는 존재가 정말로 인지를 초월한 무언가란 말인가?

“.....여보세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머뭇거리면서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예상과 반대로 대답은 엄청나게 가벼운 목소리였다.

「어라라 , 여보세요~,아마쿠사 구~운?」

".....당신 누구예요?"

이게..... , 신? 약간이라도 믿을 뻔했던 내가 바보였다. 단숨에 맥이 풀린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응? 그러니까 신이라니까 , 신. 음~ , 바꿔 말하자면 , 이른바 유일한 것, 같은 거?」

이 녀석, 뭔가..... , 경박하다.

"그래서 그 신이 나한테 무슨 용건인데요?"

이미 눈곱만큼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일단은 말을 맞추어 봤다.

「엇, 바로 그 이야기부터 하는 거야? 우와, 성격 짱 급하네.」

경박하다..... , 이 녀석, 신인지 아닌지 이전에 그냥 날라리잖아.

"당신, 정말로 신이야?"

「응? 혹시 안 믿어? 카나데 군, 내 신성함으로 말하자면 정말로 진짜 신세계의 신 급으로 신이거든.」

응,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

「증거?」

"그래. 신이라면 구름을 타거나, 지팡이에서 번개를 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아니야?"

물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우와 , 고리타분해! 카나데 군 이미지가 고리타분해! 상상력이 테라급으로 빈곤하네.」

.....열 받는다. 이 날라리, 엄청나게 열 받는다.

「그런데 , 그거랑 비슷하게 엄청난 일은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그 증거를——."

「네, 네, 이건 어때~.」

"응?"

날라리의 말이 끝난 순간, 강렬한 위화감이 덮쳐 왔다.

뭐지....., 이건?

뭔가 이렇게 , 내가 내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다.

「후후, 네 가슴을 만져 봐.」

날라리가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가슴? 거긴 또 왜....., 엉?"

이건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다시 한 번 만져 봤다....., 출렁.

다시 한 번....., 탕탕.

다시 한번 더....., 토웅~.

「아마쿠사 군의 몸을 여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 녀석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여자? 바보 같은 소리다.

하지만 방금 느낀 감촉은 분명히.....

내 손이 반사적으로 사타구니로 향했다.

".....없어."

없다 없다 없다! 반드시 달려 있어야만 하는 거시기가 없다! 남자의 상징인 거시기가 없다!

순식간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화장실의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거울에 비친 사람은 틀림없는 나였다. 눈, 코, 입과 같은 하나하나의 부품은 분명히 오랫동안 함께 지낸 내 것이었다. 그건 틀림없다.

하지만 나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은, 변명할 도 리가 없는 여자였다. 나인데 여자. 여자인데 나.

머리 모양은 원형이 사라지고 윤기 있는 세미롱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 , 말도 안 돼....., 머뭇머뭇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가슴이다. 아니, 이렇게 부풀었으니 가슴이라기보다는 유방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D컵 정도는 되는 거 아닐까?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을 도무지, 하나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스스로도 자신이 뭘 하려는지 모르는 채 팽팽해진 와이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출렁. 자신의 상반신에 달린 두 개의 그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정말로 완벽한 유방이었다.

"후....., 후후....."

나는 희미하게 웃은 뒤 크게 심호흡했다.

"꼬아아아아악!"

그 직후, 절규하면서 거실로 뛰어나갔다.

“여 , 여여여여자, 여자, 나, 여자야!”

여전히 혼란 상태인 채로 눈에 뚱 쇼콜라를 향해서 외쳤다.

“진정하세요, 카나데 양.”

“누가 카나데 양이야....., 엉?”

자신이 내뿜은 지적을 듣고 문득 눈치챘다. 방금 깨달은 사실이지만 , 목소리의 느낌도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 같은 달콤한 음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다.

“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그렇게 당황해서.」

“어 , 없어, 사타구니에 있어야 하는 거시기가 없어!”

「뭔데, 뭔데,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고—!?”

그 말을 하려던 순간, 맹렬한 기세로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건 뭐야?

「뭔데, 뭔데. 고, 뭐라고?」

“그러니까 내 사타구니의 고....., 아우.”

안 되겠다, 창피해서 그 이상 말할 수가 없다. 설마....., 사고의 일부까지 여자로 바뀌어버린 건가?

“카나데 양,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카나데 양이라고 부르지 마!”

「아하하, 카나데 양 귀여워~!」

“닥쳐! 그리고 지금 당장 남자로 돌려놔!”

「에이, 괜찮겠어? 이런 경험,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없어! 이런 경험은 백 번 다시 태어나도 없어!”

「오, 말 잘하네. 남자를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그만두시겠습니까? 같은 느낌인데..」

“그런 소리 안 했어! 왜 남자를 위험한 약처럼 말하는데!”

점점 쌓여 가는 짜증이 말에 실렸다.

"됐으니까, 빨리 남자로 돌려——."

[선택하시오. ①이대로 평생 여자로 산다. ②좋아하는 역사상 인물의 이름을 외치면서 머리 대고 물구나무서기.]

"존 만지로!"

"카나데 양,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다!"

나는 물구나무선 채로, 쇼콜라에게 소리쳤다.

선택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바로 물구나무서기를 그만두고 바닥에 내팽개친 휴대전화를 집었다.

"됐으니까, 빨리 남자로 돌려놔줘!"

「에이, 진짜로? 아깝지 않지 않지 않아?」

"닥치고 돌려놔!"

「쳇, 어쩔 수 없네..」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린 뒤, 급속히 위화감이 사라졌다. 몸의 이곳저곳을 더듬었다. 가슴은 없었고 거시기는 있었다.

"하아아....."

맥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때어때 ,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큭....., 이런 걸 봤으니 적어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날라리 같은 녀석이 정말로 신이란 말인가.

수화기 건너편에 있는 녀석은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오케이. 그러면 친목도 다졌으니 , 본론으로 들어갈까..」

친목? 그 말이 진심이라면 뇌가 맛이 갔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너의 저주에 대한 건데 말이야~..」

"저주..... , 말이지."

조금 전에 쇼콜라가 말했던 단어다.

“응응. 너의 경우에는 말이야. 어디 보자....., 아, 여기 있다. 머릿속에 ‘선택하시오.’ 라는 게 떠오르는 거잖아?”

“그래, 절대 선택지 말이지.”

「절대 선택지? 우와~, 카나데 군, 그런 창피한 이름을 붙였어? 중2병 장난 아닌데~.」

"으....."

지금까지는 입 밖에 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조금 부끄러운 이름일지도 모른다.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겠지. 그래서 그 저주의 해제 방법 말인데.」

이야기가 갑자기 핵심으로 들어갔다. 숨을 삼키고 날라리 신의 말을 기다렸다.

「으~음. 까놓고 말해서, 하달되는 미션을 계속 처리하면 되는 것 같아.」

“미션이라니....., 혹시 아까 휴대전화로 온 이상한 문장 말이야?”

분명, ‘유키히라를 웃게 만들어라.’ 인지 뭔지 하는 의미 불명의 내용이었다.

「오, 진짜? 역시 이 몸, 타이밍 죽이네.」

날라리 신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 아까부터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너,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응, 다는 고사하고 거의 몰라.」

신이 시원스럽게 말했다.

“거의라니....., 신이라면서?”

「그게 참, 그렇긴 한데 말이야. 내가 너희 세계군(世界群)의 담당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주고 도중에 하차해버려서, 정말이지 힘들어 죽겠다니까.」

“전임자....., 무슨소리야. 신이 그렇게 많아?”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천에 쪼고 뿔지~. 그 왜,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말도 있잖아.」

쪼고 뿔다니....., 그렇게 말하니 신성함이고 뭐고 없었다.

뭐, 그래도 이 날라리 신이 무수히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밑바닥 수준이라면, 그나마 수공이 갔다. 이런 녀석이 유일무이한 신이라면 정말로 싫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란 건 너희 세계군의 독자적인 시스템이라서 나도 아직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

그 이야기가 진짜라면 날라리 신은 이 일에 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전임자에게 물어볼 수는 없어?”

「아 , 무리야, 무리. 도중하차했다고 했잖아?」

도중하차인가. 신이나 되는 사람이 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출산 휴가거든..」

“엥?”

「그러니까 출산 휴가라고. 아기가 생겼어..」

“아, 아기? 신이?”

「카나데 군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신도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도 자고, 밤일도 하거든..」

마지막 부분은....., 좀 더 돌려서 말할 수는 없었을까.

“그렇지만 도중하차라고 해도 출산 휴가잖아? 딱히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연락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 안 돼, 안 돼. 그 녀석, 진짜 크게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결계를 치고 틀어박혔거든..」

“충격? 임신은 좋은 일 아냐?”

「뭐라더라, 불륜 끝에 한 임신이라는 모양이라, 사모님이 쳐 들어오더니 ‘이 도둑고양이!’ 라면서

뺨을 후렷대..」

“그냥 아침 멜로 드라마잖아!”

신은 대체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이를 낳는 것만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고 했다던데～.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면, 무사히 낳은 뒤에는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신의 임신 기간은 어느 정도야?"

「음, 너희 세계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1만 년..」

“백 번은 죽겠네!”

인간의 상식이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 열 달 열흘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

「그래서 말이야～, 지금 그 녀석의 집무실에 와 있는데 , 엄청나게 칠칠치 못했던 모양인지, 자료가 뒤죽박죽이야. 저주에 관한 부분만 모으고 있는데 , 무진장 귀찮은 데다 , 이 방 , 어쩐지 냄새나..」

신이란 건....., 이렇게 대충대충인 녀석들도 할 수 있는 건가.

「그나저나 카나데 군, 상황 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거 아냐?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 '제49세계의 아마쿠사 카나데의 저주에 관해서는 우리도 다 파악하지 못한 미확인 요소가 군데군데 보이기 때문에 , 해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조역으로는 시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파견하기로 한다.' 래. 옆에 있지? 자세한 건 그 애한테 물어봐～..」

보조역인가. 그건 상황으로 봤을 때 쇼콜리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내가 잘못 들었나? 뭔가, 가장 우수하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고로 , 나도 한가한 게 아니니까 뭔가 알게 되면 나중에 또 전화할게 , 뽕~.」

“이, 이봐.....”

날라리 신은 붙잡을 틈도 주지 않고 통화를 끝내려고 했지만,

「아 , 잠깐만. 뭔가 중요해 보이는 부분을 발견했으니까 말해둘게. 한 번이라도 미션을 실패하면, 평생 저주가 걸린 채로 살아야 한대~.」

“뭐? 그게 무슨.....”

「그럼 , 다음에 봐~.」

“아니, 잠깐기다—.”

통화가 일방적으로 뚝 , 끊어졌다.

통화 기록에서 ‘신’이라고 적인 번호에 다시 걸어보았지만 ,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자주 듣는 무기질적인 목소리였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전파가 닿지 않는 세계에 있거나 , 전원이 꺼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야!"

그만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말았다.

"아, 애기 곤난나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쇼콜라가 태평하게 말을 걸었다. 쇼콜라의 볼은 대량의 쿠키로 부풀어 있었다. 넌 또 왜 그렇게 휴식 모드인 거냐. 자기 집이냐.

"쇼콜라군, 잠깐 이쪽으로."

"네, 무슨 일이죠?"

쿠키를 단번에 삼킨 쇼콜라는 즐거운 듯이 다가왔다.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너, 기억은 다 돌아왔어?"

"아, 네! 거의 다 생각났어요."

활짝 웃는 그 미소에 한시름 놓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무리 바보라도 지금 나에게 남아 있는 정보원은, 이 녀석뿐이다. 단지 '거의 다' 라는부분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요."

이름인가. 실로 아무래도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다행이다. 이 녀석이 쇼콜라든, 파르페든, 곤약이든, 내 절대 선택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걸 전부 알려 줘.”

“안타깝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뭐?”

“저한테는 카나데 씨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아니, 그렇지만 이름 외에는 전부 생각났다면.....”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뭐?”

“그게 말이죠, 저는 처음부터 기억 상실이었는데,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조금 전에 떠올렸어요.”

즉, 이중 기억 상실이었던 것이 그냥 기억 상실로 돌아왔다는 건가,그게 뭐야.

“후후후. 그래서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요.”

“응....., 그 부분에서 자신만만해하는 너에게, 나도 깜짝 놀랐어.”

이걸 어쩌면 종단 말인가....., 어쩐지 느닷없이 길이 막힌 것 같다.

아니,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쇼콜라는 어셜프나마 저쪽 세계(?)의 사람이니, 닥치는 대로 질

문을 하면 뭔가 정보가 나올 것이다.

"아는 것만 말해도 되니까, 차근차근 말해줘. 일단, 어떤 경위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거야!?"

"아, 네. 기억도 일도 없이, 매일매일 과자랑 게임에 빠져서 지내던 저에게 한 장의 지령장이 날아왔어요. 아마쿠사 카나데라는 사람의 저주를 푸는 것을 도와라고요."

"과연, 그래서?"

"그것뿐이에요."

"뭐?"

"그게 말이죠, 대상자가 무척 우수한 사람이고 걸려 있는 저주도 경미한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같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뭘까....., 뭔가가 치명적으로 어긋나는 이 느낌은.

"아니,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나와 쇼콜라는 서로 머리 위에 물음표를 띄웠다.

"카나데 씨, 질문해도 될까요?"

잠시 시간을 두고 쇼콜라가 힘차게 손을 들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마쿠사 카나데는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한 가짜 모습이고, 본명은 '아 마그사 가나도르' 맞죠?"

"그건 또 누구야!?"

"이 세계는 하루마다 '양의 시간' 과 '음의 시간' 이 반복되어서, 음의 시간이 되면 인류와 적대하는 '마도수'가 일제히 들이닥치는 거 아닌가요?"

"그 중2병도 새파랗게 질릴 만한 설정은 뭐야!"

"카나데 씨가 위기에 처하면 몸 안에 깃든 태고의 전사의 의식이 각성해서 , 제가 생각한 최강의 로봇 '엘드라운' 이 소환되고—."

"아니 , 이제 됐어....., 뭐든 간에 이제 됐어."

"그런가요? 아 , 그건 그렇고 카나데 씨, 슬슬 자야 하지 않나요?"

"엥?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직 시간 이르잖아."

"네? 하지만 이 세계는 인과변혁체인 카나데 씨가 잠들어야, 음의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내일이 올 뿐이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까 날라리 신과 했던 통화나 쇼콜라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 세계와 다른 것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생각 해볼수 있는 것은——.

혹시 , 신이 보낼 세계를 착각한 건가?

평행세계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그 , 아 마그사 어찌고(평소에는 아마쿠사 카나데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모양이다)라는 녀석에게 원래 내 서포트를 할 예정이었던 가장 우수한 시종이라는 녀석이 가버렸고, 까다로운 저주가 걸린 나에게 이 쇼콜라가 와버린 것이 아닐까.

그 가설을 쇼콜라에게 말해 보니 , ‘과연!’이라는 느낌으로 손 뺄을 탁쳤다.

“파견된 시종에게는 그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언어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인스톨되는데 , 이곳은 지령서에 쓰여 있던 세계관과 너무 많이 달라서 ‘조금 이상한 걸~!’ 하고 생각은 했어요.”

.....즉, 그 말인즉슨. 내 눈앞에 있는 이상한 생물은 절대 선택지를 해제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활짝 웃으며 쇼콜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돌아가.”

“어떻게요?”

“뭐?”

“지령서에는 분명 보좌 대상자의 저주가 풀릴 때까지는 돌아 갈수 없다고 쓰여 있었어요.”

".....왜?"

"몰라요."

"왜 모르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럼 아는 게 뭐야?"

"카나데 씨가 만든 쿠키는 맛있어요!"

"지금나 놀리는 거야!"

"자자, 카나데 씨. 일단 맛있는 저녁이라도 먹고 마음을 가라 앉히죠."

확실히 배가 고픈 상태로 정리될 생각도 정리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왜 이 녀석이 먼저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연어 뢰니에르는 어떠세요? 냉장고 안을 봤는데, 있는 재료로 샐러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면부지인 녀석에게 주방을 맡기는 건 내키지 않았지만, 혼란스러운 지금의 정신 상태로 요리를 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알았어. 그러면 그걸로 부탁할게."

"네?"

쇼콜라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기우뚱했다.

"저 요리 못하는데요?"

"뭐? 아니, 그렇지만, 방금 연어 뢰니에르랑 셸러드라고....."

"?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만드는 거냐!"

결심했다, 결심했어. 이 녀석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다. 이런 쓸모없는 녀석을 집에 둘 이유는 눈곱만큼도 없다.

"이봐, 쇼콜라. 이 집에서 나가—."

[선택하시오. ①포기하고 쇼콜라와 함께 산다. ②포기하고 자신이 나간다.]

도대체 왜!

.....이렇게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소동을 거치고 히룻밤이 지나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한 나에 비해 이 녀석은 ,

"쿨~."

.....이 모양이다.

쇼콜라의 자는 얼굴은 너무 평온해서 깨우는 것이 망설여질 정도였지만, 슬슬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등교 시간에 여유가 없어진다.

"이봐, 일어나."

가볍게 흔들어 보았지만 쇼콜라는 전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좀 더 세게 흔든 순간 ,

"아....., 카나데 씨."

쇼콜라가 몸을 부들 떨더니 묘하게 야릇한 목소리를 냈다.

"카나데 씨가....., 카나데 씨가 큰일이야....."

응?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아, 카나데 씨의 구멍이라는 구멍에 축수가....."

구멍? 축수? 설마.....

"카나데 씨의 뒤쪽 정조가, 앗!"

이 녀석....., 부녀자였냐.

"오오....., 카나데 씨는 몸부림을 치는 표정도 엄청 좋네요.....좋아좀더 하는 거야, 예요."

.....이 녀석을 봐줄 필요는 없다고 깨달은 나는, 쇼콜라의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했다.

".....응?우?뭇."

묘한 소리를 내더니 겨우 정신이 든 쇼콜라는, 잠이 덜 했는지 시선이 허공을 떠돌고 있었지만,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 카나데 씨, 안녕하세요!"

라며 순식간에 얼굴을 활짝 펴더니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어, 어어....., 안녕."

그 해맑은 웃음을 똑바로 본 나는 반사적으로 눈길을 피하고 말았다. 아무런 화장도 하지 않은 맨얼굴인데도 너무 아름다웠다.

덤으로, 빌려준 파자마가 흐트러져서 상당한 면적의 맨살이 노출되어 있었다. 게다가 본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완벽한 무방비 상태였다.

"카나데 씨, 왜 그러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머리로는 쇼콜라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침대 여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았다. 혼자서 멋대로 당황한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밑으로 내렸다.

“아, 혹시.”

그런 내 눈치를 살핀 쇼콜라는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꼬대하다가 침으로 카펫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들켰나요?”

“대체 어떻게 자면 그렇게 되냐!”

.....조금이라도 이 녀석을 이성으로 생각한 내가 바보였다.

“오오, 대단해요!”

테이블 위에 차려진 아침밥을 본 쇼콜라는 야단스럽게 탄성을 내뿜었다.

어제는 도저히 요리를 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 컵라면으로 때웠지만, 인스턴트식품만 먹었다가는 영양은 불균형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그 결과, 요리 실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쇼콜라는 눈을 빛내면서,

"호오오."

라거나,

"하아아."

라고 하나하나 과장된 반응을 보이면서 젓가락을 놀렸다. 메뉴 자체는 대단치 않았지만 꼬리털을
쫓긋거리면서 이렇게까지 맛있게 먹어주니, 만든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과 쇼콜라가 눌러앉은 것을 용인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런데....., 얹혀사는 주제에 참 잘도 먹는구나."

"에헤헤."

응? 왜 기뻐하는 거이? 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지금 한 비아냥거림을 칭찬이라고 인
식하는 것일까.

내가 경멸하듯이 뻘뻘 쳐다보자 그제야 뭔가를 느꼈는지, 쇼콜라는 손가락을 세우고 흔들면서 혀
를 찹찹 찼다.

"카나데 씨, 카나데 씨, 저는 공짜로 먹고 자고도 태어난 후 안무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 다행이네. 그래, 내가 원했던 건 바로 그런 반응이다. 딱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건 '면목 없습니다. 고압습니다.' 라는 마음이다.

"집의 경비는 제게 맡겨주세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잖아!"

이 녀석은 안 되겠다....., 그렇지만 선택지의 제약이 있는 이상, 쫓아낼 수도 없다.

"후후후. 방금 건 농담이에요, 카나데 씨."

어째서인지 자신만만한 기색인 쇼콜라는 품 안에 손을 찔러 넣었다. 쓸데없이 풍만한 그 계곡에서 꺼낸 것은——.

"돈.....다발?"

유키치 선생님의 집단이었다. 아마도 백 장 단위다.

"필요 경비로 전송받은 거예요. 모자라면 추가로 얼마든지 보내준다는 모양이에요. 일단 이건 카나데 씨에게 맡겨 두게요."

진짜냐....., 설마 정말로 현찰이 나올 줄은 몰랐다. '전송은 또 뭐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 봤자 소용없다.

이 정도 양은 아무리 봐도 너무 많았지만, 나중에 쓴 만큼 빼고 돌려주면 되겠지.

출처가 쇼콜라이기에 엄청나게 수상했지만, 겉보기에 위조 지폐는 아닌 것 같으니—.

“잘모르겠지만 , 뭐라더라, 돈세탁은 끝났다고 했어요.”

“위험한 돈이잖아!”

반사적으로 돈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건 일단 네가 가지고 있어.”

“그럴까요?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쇼콜라는 더럽혀진 유키치 선생님들을 가슴 계곡 안에 넣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 보자.

“일단 학교에 갔다 올게.”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잘 다녀오세요.”

나는 여전히 만면에 미소를 띤 쇼콜라의 얼굴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다.

“있잖아 쇼콜라 , 넌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야?”

"무슨 말이죠?"

“아니, 나한테 갑자기 혼자 다른 세계로 가서 모르는 녀석을 도우라고 하면 , 아무래도 그렇게 느

긋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성격이라고 하면 그뿐일지도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때 자연스럽다고 하기는 어려운 태도라고 생각했다.

"그게 말이죠. 저희 신의 시종은 인간의 보조를 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돕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대상이 되는 인간과 사이가 험악해지면 임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조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마치 자신이 물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조금 미움에 걸렸지만 저쪽 세계의 상식은 모르니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흐~음, 그런 건가."

"네. 그래서 저는 카나데 씨를 정말 좋아해요!"

"야....."

그건 엄청나게 직선적인 호의였다.

"왜 그러시죠?"

아니, 알고 있다. 이 녀석의 호의는 비유하자면 강아지가 주인에게 품는 것과 같아서 연애의 요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여자아이의 모습——더군다나 말도 안 될 정도로 귀여운——을 한 생물의 입으로 '정말 좋아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성 따위는 날아가 버리는 것이 남자라는 생물이다.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붉어지기 시작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까 침실에서 진저리를 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러는지, 스스로 생각해도 학습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런가요? 그러면 집 지키기는 저한테 전부 맡겨 주세요!"

그 말에 생각이 퍼뜩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조금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 간다고 했지만, 나는 이 녀석에게 빈 집을 맡겨야만 한다. 우수한 녀석을 대신해서 잘못 온 쓸모없는 시종에게 말이다.

"정말로 괜찮겠어? 설거지 같은 건 할줄 알아?"

"네. 할아도 문제 없도록 반짝반짝 닦아 놓을게요."

"아니, 원래부터 할아도 문제없는 건데....., 왜 변기처럼 말하는 거야."

역시 이 녀석에게 맡기자니 불안하다. 내가 없을 때 일어날 만한 사태를 시뮬레이션해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쇼콜라, 집 지키기를 맡기기 전 가벼운 테스트야."

"네, 얼마든지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다.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밖에 나가고 싶어져요."

"네 생각을 묻는 게 아냐! 빨래를 걷어야지!"

시작부터 첩첩산중이다.

"신문 권유가 오면 어떻게 하지?"

"세제만 받고 쫓아내요."

"너 참 지독하구나!"

다음이다 , 다음.

"나야 나 사기인 것 같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지?"

"신님에게 위조지폐를 보내달라고 해서 입금해야죠."

"사건이 더 커지잖아!"

.....다음.

"나카지마가 놀러 오면 어떻게 하지?"

"야구를 해요!"

"하지 마! 애당초 그 녀석은 이소노하고밖에 안 놀잖아!"

"방금은 카나데 씨의 질문이 장난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음....., 확실히 그러네."

무심코 장난기가 발동하고 말았다.

"알면 됐어요."

쇼콜라가 오히려, 하는 표정을 지어서 발끈했다. 뭐라고 쏘아붙여 주려고 했지만, 슬슬 시간이 위태로워졌다.

"큭, 그럼 다녀올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기운찬 배웅을 받으며 어찌할 길 없는 불안을 안고서 집을 뒤로했다.

“꾸에에에에엑!”

점심시간인 2학년 1반에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돼지’가 내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꾸에에에에엑!”

그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돼지’가 내는 소리 같았다.

“꾸에에에에엑!”

그 소리를 내는 주인공의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갖가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그가 받고 있는 고통이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 모습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돼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꾸에에에에엑!”

총 열 번의 울부짖음을 끝낸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돼지’—아니, 나는 공허한 표정을 띤 채로 교탁에서 내려왔다.

[선택하시오. ①교탁 위에 발랑 뒤집어져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돼지’의 울음소리 흉내를 열 번. ②전신에 밧줄을 묶은 다이코 씨(전라)가 출현해서 같은 차림으로 공개 본레스햄 플레이.]

이 선택지가 나타난 순간 진지하게....., 꽤 진지하게 욕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사인: 돼지 흉내 거부' 라는 딱지가 붙어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불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겨우 단념하고....., 했다.

"왜....., 왜 내가 이런 꼴을....."

그래,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이 절대 선택지 때문이다. 이 녀석을 없애기만 하면, 나는 평온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한 조건도 명확해졌다. 신이 준 미션을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내용은 '유키히라 후라노를 진심으로 웃게 만드는 것'대체 이게 뉘란 말인가. 너무 생뚱맞아서 진지하게 시도해 볼 생각도 들지 않는다.

".....응?"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봤다. 인기척의 주인은 놀랍게도 유키히라 본인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없는 무표정으로 내 어깨에 툭 손을 얹었다.

"아마쿠사 군, 그걸 동경하는 마은 이해하지만, 지금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동경한다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거 참, 나도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

"미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안타깝지만, 아까 그걸 블랙 유머로 인정해줄수는 없어."

"그런 유머 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거든!"

그건가, 어제 벌레인지 돼지인지 했던 그건가.....

"덧붙여서, 너는 피부가 하얀니까 블랙 블랙 유머가 아니라, 화이트 블랙 유머로 분류할 수 있어.
즉, 흰 돼지지."

"알 게 뭐야!"

"덧붙여서 진명으로 표현하면 '흰 돼지의 멋들어진 소 시간(피그즈 쇼타임).' 이 되겠지."

"너, 진지한 표정으로 잘도 그런 부끄러운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반대로 내가 묻겠는데, 블랙 유머가 아니라면 방금한 기행은 도대체 뭐였어?"

"음....."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니, 애당초 이유가 없으니 설명을 할 방법이 없다.

.....잠깐, 이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아무 이유도 없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돼지'의 울음 소리 흥내를 냈다는 것 보다는, 블랙 유머(?)에 도전해봤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그나마 가벼운 피해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 실은 , 어제 네가 한 농담이 재미있어서 좀 따라 해 보려고....."

바로 부정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건 역시 구차한가? 내가 안색을 살피자 어째서인지 유키히라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역시 그랬구나."

"응?"

"혹시나 싶어서 떠봤는데..... , 내가 매일 밤늦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불택 표절하려고 한 거구나."

이녀석..... ,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건 이미 고소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네."

"아니, 아니, 딱히 베끼려고 한 건 아닌데."

"너 , 고소!"

인터넷 유행 어풍으로 말하는 유키히라.

"아니, 그러니까, 딱히 그런 걸 표절—."

"너, 고소!"

이 녀석....., 분명히 이 말을 해보고 싶은 것뿐이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너, 고소!”

시끄러워어어엇!

“재판장, 재판장을 불러주게!”

“아니 , 그런 사람 없거든. 왜 ‘셰프를 불러주게!’ 처럼 말하는 건데.”

“휴우~ , 잘 먹었다!”

그때 , 타이밍을 쟀 것처럼 유오지가 출현했다.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지 , 만족스럽게 배를 탁탁 두드리면서 교실로 들어왔다.

“어머 , 마침 재판장이 돌아왔네.”

“아니 , 아무리 봐도 그냥 유오지잖아.....”

“응?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냄새가 나는군요.”

큰일이다. 뭔가 한층 더 성가셔질 것 같은 예감이.....

“재판장님 , 이 녀석은 남의 지적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꾀스런 놈입니다.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지적 재산이라니 , 너..... , 돼지 농담이 지적 재산이냐.

“잘 모르겠지만 , 사형.”

“약식 재판에도 정도가 있지!”

“정해졌네. 빨리 통구이로 만들어버리자.”

“내가 돼지냐!”

유키히라는 내 탄죽을 무시하고 담담히 말을 이었다.

“재판장님,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피고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고가 ‘인간인가 돼지인가’ 라는 점입니다.”

"무슨소리야!"

“정리하면 , 피고는 ‘유죄인가 돼지인가’가되는 거네.”

"한층 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쿠사 군 , 인간과 유죄는 어떤 의미에서 같다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인간이란 다른 모든 생명을 희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죄 많은 생물이니까..... , 그래, 말하자면 그 존재 자체가 죄인 거야.”

"그 뜬금없이 멋있는 소리는 뭔데!"

"자, 재판장님, 슬슬 판결의 시간입니다."

"너무 빠르잖아. 아직 아무 논의도 안 했잖아."

애당초 '유죄인가 돼지인가.' 라니, 뭘 토론해서 뭘 정하면 된단 말인가.

"그러면 돼지로."

"돼지 아니라고!"

"그러면 유죄로."

"유죄도 아니야!"

"재판장님이 판정을 번복하는 온정을 베풀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장난은 적당히 쳐 줄래?"

"아니, 너희들이지! 장난치는 건 아무리 봐도 너희들이잖아!"

"그래도 말이야. 아맛치가 돼지 울음소리 흉내 낸 거, 교실 바깥까지 들린 데다, 항상 범죄 같은 짓만 하잖아~."

"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대답이 궁해졌다. 실제로 경범죄 수준의 행동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아마쿠사군은 어쩐지 돼지 같은 데다 , 미묘하게 유죄같아."

"같다니....., 완전히 너의 주관이잖아."

"아마쿠사 군. 고작 한 사람의 개인이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에고야."

"그러니까 그 뜬금없이 멋있는 소리는 뭐냐고!"

"자 , 선택해, 아마쿠사 군. 돼지로서 돼지우리에서 살아갈지 , 인간으로서 돼지우리 같은 유치장에 처넣어질지!"

"양쪽다 사양이네!"

아니, 이 둘을 상대하는 걸 이제 사양하고 싶다.

"야!"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우타게 선생님이 교실에 침입했다.

"으엑....."

선생님은 돌진하는 듯한 기세로 나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멍살을 잡았다.

“아마쿠사, 너, 이 자식..... 교실에 돼지를 데려와서 신나게 만지작댔다는 모양이더라.”

“아뇨,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선생님은 자기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성애자.”

“이상성애자처럼 말하는 건 뭔데요!”

“뭐 그건 농담이라 치고. 1반에서 돼지 울음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교무실에 여러 건 들어왔어.”

“그건....., 전데요.”

“거봐. 아마쿠사, 매번 그렇지만 이렇게 성가신 일을 만들어 놓고 무죄 방면을 하면, 다른 녀석들한테 체면이 안 서잖아.”

그 이유는 이해하지만 하는 척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적당히 혼내는 척하면서 학생 지도실로 데려가면....., 잠깐, 뭔가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오....., 살에 파고드는 이 감각. 그리운걸.”

이 사람 작은 소리로 뭔가 위험한 말을 하고 있잖아!

“큰일인데....., 끓어오르기 시작했어. 이거 어지간해서는 잠잠해지지 않겠는데.”

이상해 , 이상해 , 이 녀석, 이상하다고!

“아마쿠사. 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되긴 뭐가 그렇게 돼요! 그에에에엑!”

뭐가 뭔지 모르는 사이에 내 의식은 희미해졌다.

“그래서?”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예요! 그거 말고 할 말이 있을 텐데요!”

학생지도실. 의식을 되찾은 나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려는 담임 교사를 보고 , 나는 불만이 폭발했다.

“괜찮아. 사람은 그 정도로 죽지 않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목을 조르는 데에 관해서는 프로니까, 어디까지가 안전한 라인인지 숙지하고 있거든. 다들 ‘교살의 우타게’ 라고 불렀으니까 말이야.”

“완전히 조폭 영화 제목이잖아요!”

결단코 국어 교사에게 불을 만한 별명이 아니다.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세계에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그 상황이 수습되지 않았을 거 아냐."

"아니 , 수습됐을걸요! 오히려 선생님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죠!"

왕년을 떠올리고 흥분하는 건 선생님 마음일지 몰라도 , 나는 느닷없이 목을 졸려서 까무러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트라우마가 생길 뻔했다.

그 이야기를 하자 , 우타게 선생님은 웬일인지 조금 반성하는 표정을 지었다.

"뭐 , 확실히 좀 지나쳤을지도 모르겠네..... , 좋아 , 그러면 특별히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지."

"좋은 방법?"

"그래. '최근 5분 동안의 기억을 없애버리는 혈' 이라는 게 있거든."

수상쩍다!

"아직 아슬아슬하게 5분 안 넘었잖아. 어때 , 아까 일을 잊어 버리고 싶다면 시험해보지 않을래?"

"아뇨, 사양할게요....., 근데 그 혈이 어딘데요?"

"후두부인데 말이야. 정확한 자리는 모르니까, 벽이나 바닥에 마구 부딪치는 거야."

"그건 혈도 뭣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로 뭐 하는 사람일까..... 하지만 오만불손하 다는 말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이

사람에게도 저주받았던 시기가 있는 것이다.

우타게 선생님이 절대 선택지에 농락당하는 모습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만.....

“선생님, 진짜로 저주받았었나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었는데 우타게 선생님의 몸이 한 순간 바르르 떨린 것처럼 보였다.

“그래..... 사실, 내 성격이 아주 살짝 거칠어지고 만 건, 저주 때문이야. 너라면 알겠지? 그런 게 24시간 내내 머릿속에 나타나면 성격도 비뚤어지는 법이야. 원래 나는 훨씬 얌전하고 순정파에 가련한.....,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요조숙녀였지.”

“거짓말!”

목소리가 척수 반사로 튀어나왔다.

“뭐, 인마!”

아니....., 그런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게 무리 아닐까요. 그보다, 무서운데요.

“정말이지....., 뭐 그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어제 하늘에서 떨어진 아가씨는, 그 뒤로 어떻게 됐어?”

선생님은 의자 뒤로 몸을 한껏 젖히면서 물어봤다. 아아, 일단 신경은 써주고 있었구나.

나는 쇼콜라가 우리 집에 눌러앉게 된 경위와 날라리 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고했다.

"역시 망할 미션도 왔군....."

이야기를 다 들은 선생님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맞아, 그 미션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괴상한 내용이라 진지하게 할 음도 안 드는데요."

유키히라를 웃기라니 , 절대 선택지와 너무 관련이 없지 않은가.

"그건 말이야, 진짜야."

"네?"

우타게 선생님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신이랑 시종은 불성실한 데다 미션 내용도 장난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저 주는 두 번 다시 풀 수 없다....., 그 말은 진짜야."

심각한 말투에 무심코 숨을 삼켰다.

""왜?" 라고 생각해 봤자 아무 의미 없어. 미션이 나온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달성하는 수밖에 없어. 잘 들어, 아마쿠사.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농담이나 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선생님의 그 표정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

"뭐, 지금까지처럼 계속 커버는 해줄 테니까 , 나머지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지."

마음속으로 '도대체 아까의 어디가 커버였는데요.' 라고 지적 했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또 성가셔질 테니 참았다.

"그래서 정작 미션 내용은 뭔데? 휴대전화좀 줘봐."

미션의 내용을 확인한 선생님은, 나에게 측은한 시선을 던졌다.

".....불쌍하게 됐네."

"어, 응? 뭔가요 , 그 '진짜로 끝장이네.' 라는 눈빛은."

우타게 선생님의 반응에 위기감이 급속히 몰려왔다.

하지만 내일 안으로 유키히라를 진심으로 웃게 만들어야 한다니....., 엄청나게 무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수업 내내 내 시선은 교실의 한가운데에 있는 유키히라의 자리로 향해 있었다.

유키히라는 가볍게 턱을 괴고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역시 그 얼굴 자체는 상당히 예뻐다.

아니지, 아니지. 이런 느긋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내일까지 저 녀석을 웃기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우타게 선생님이라는 저주를 푼 실례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 언젠가는 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년 동안 절대 선택지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미션에 실패해서 평생 풀 수 없다고 확정되어 버리면..... , 인생 종료 통지나 다름없다.

"쿨~."

뒷자리에서 세상모르고 자고 있는 유오지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와서 , 의식이 현실로 돌아왔다. 공책에 침을 흘리면서 행복한 듯이 세상모르고 자고 있었다.

"후후....., 신난다, 햄버그다..... , 카레라이스도 있네."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냐. 어린애냐.

이 미션의 대상이 본능대로 사는 유오지였다면 엄청나게 편했을 텐데. 뭐, 불가능한 일을 즐라 봤자(좀 다른가?) 소용없다. 다시 유키히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애당초 나는, 유키히라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개그가 먹히지 않았을 때에는 언성을 높이거나 오버액션을 취할 때도 있지만 , 그게 끝나면 금방 무표정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때 시선을 느꼈는지 갑자기 유키히라가 고개를 돌려서, 똑바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음....."

딱히 켜기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들키는 것은 창피

했다.

유키히라는 그런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눈을 가늘게 스윙 뜨더니 칠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수업 종료. 일직선으로 내 책상을 향해서 온 유키히라.

"아마쿠사 군. 유감이지만 아무리 쳐다봐도 , 나와 너의 관계성은 바뀌지 않아."

이건....., 혹시 내가 유키히라를 좋아해서 계속 쳐다봤다는 오해를 한 건가?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유키히라, 그건 결코 그런 의미가—."

"나는, 너의 여동생이 될 수 없어."

".....엥? 도대체 무슨 소리야?"

"실은 어제 방송된 애니메이션 '마법청년 그리규어5' 330화 에서, 새로운 마법도구 '오빠가 제일 좋아 안경' 이 등장했거든. 그 효과가 '장착하고 남의 등을 응시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여동생으로 변한다.' 였어."

터무니없는 설정이다. 그런 애니메이션이 용케 300회 이상 지속됐구나.....

"덧붙여서 백 살인 할아버지가 여동생으로 변해서 , 주인공과 알콩달콩하기 시작했어."

"그런 수요도 있냐?!"

"나는 영락없이 '오빠가 제일 좋아 안경' 을 입수한 아마쿠사 군이, 나를 여동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마법도구 같은 게 현실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만 봐, 남자가 서른 살이 넘어서도 거시기면, 마법사가 된다고 하잖아."

"남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주실래요!"

진지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말과는 대조적으로, 유키히라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이 녀석을 폭소하게 만들라니....., 엄청나게 무리 같은데요.

3

"다녀왔어....., 어라?"

집에 돌아왔는데, 쇼콜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녀석, 집 지키는 거 맡겨 달라고 했으면서, 멋대로 밖에 나간 건가.....

"뭐 어때."

지금은 쇼콜라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유키히라를 웃길 방법을 시급히 생각해야 한다.

".....틀렸어."

저녁을 차리는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애당초 개그맨도 뭣도 아닌 나에게, 갑자기 남을 진심으로 웃게 만들라니, 처음부터 무리다.

뭐, 우타게 선생님의 말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수밖에 없지만, 이건 기합을 넣거나 끈기를 발휘한다고 딱히 어떻게 되는 문제도 아니다.....

가볍게 한숨을 쉬면서 냄비의 불을 끈 순간, 타이밍을 노린 것처럼 쇼콜라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오, 어디 갔다 온....., 그 짐은 뭐야?"

거실로 힘차게 뛰어들어 온 쇼콜라는 등에 뽕뽕하게 부푼 배낭을 메고 있었다.

"후라노 씨를 웃기기 위한 아이템이에요. 카나데 씨를 위해서 하루 종일 모았어요."

쇼콜라는 즐거워하면서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뭐, 이 녀석이 준비했다는 시점에서 이미 기대치는 상당히 낮아졌지만, 아무것도 떠오른 게 없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배낭에 손을 뻗어서 안에 든 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음....., 이 좋은 냄새는 뭔가요!"

주방 쪽으로 눈을 돌린 쇼콜라가 코를 킁킁거렸다.

"아, 오늘 저녁 포토피거든."

"포 , 포토피..... , 이 집에서는 그렇게 트렌디한 음식도 나오는 건가요!"

트렌디하다는 말을 실제로 하는 녀석은 처음 봤다. 애당초 소박한 가정 요리인 포토피에 , 트렌디한 요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다.

"뭐 , 배낭 안부터 보고....., 아니, 먼저 밥부터 먹을까."

"네네, 그렇게 해요!"

이렇게 눈앞에 밥을 두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들은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 느긋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하움....., 호아아....., 이건....., 뭐랄까....., 무척....., 포토피네요."

우리 집 강아지는 어휘력이 무시무시하게 부족했다. 뭐, 기뻐하는 표정만으로도, 맛있어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전해졌지만 말이다.

"그러면 슬슬 배낭 안을 보고 싶은데."

"아, 그렇죠. 후후후, 그러면 바로 회심의 카드를 꺼내볼까요."

쇼콜라는 배낭 밖에 달린 주머니에 들어 있던, 책 한 권을 건넸다.

‘여자아이의 미소를 GET하는 열 가지 방법~이걸로 당신도 인기 킹이다!~’

.....제목만으로도 엄청나게 수상쩍다. 그리고 부제의 센스 좀 어떻게 안 되나.

"어디 볼까."

이런 종류의 책은 십중팔구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아무리 쇼콜라라고는 해도 모처럼 남이 사다준 것을 보지도 않고 돌려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팔락팔락 넘겨봤다.

일러스트가 상당히 많았지만 은근히 두께가 두꺼워서, 끝까지 읽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았다.

목차 바로 뒤에, 요점만 모아 놓은 페이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곳을 훑어보기로 했다.

[① ‘너, 참 예쁘구나.’ 라고 칭찬한다.]

시작부터 상당히 직구지만, 확실히 이런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할 여자는 없을 것이다.

[해설: 만약 상대 여자가 예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익살을 떨면서, ‘너, 참 예쁘구나(웃음).’ 라고 해보자.]

실례에도 정도가 있지!

[②비유를 이용해서 칭찬한다.]

①의 응용인가. '마치 해바라기 같은 미소구나.' 라는 말이라 도 하는 걸까. 조금 창피하지만, 잘만 이야기하면 여자애도 기뻐할것 같다.

[해설: 얼굴이 말처럼 생긴 여자의 경우 '헤이 걸! 금방이라도 당근을 따러 갈 것 같은 얼굴인데!']

노발대발할걸!

[③어쨌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준다.]

이건 글썄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설: 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럼 쓰지 말든가!

[④일단 자신이 먼저 웃는다.]

오 , 이건 상당히 심오한 내용일지도 모른다. 확실히 자신이 즐겁지 않은데 , 남을 즐겁게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해설: 덧붙이자면 필자가, 여름에 코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 앞에서 이것을 실천해 보았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변태잖아!

[유치원생이 우는 얼굴,하아하아.]

경찰 아저씨, 여기예요!

[⑤돈을 준다.]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야 , 일시적으로는 웃어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해설: 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미소는 100퍼센트 가짜입니다.]

이 녀석, 이 책의 취지가 뭔지 모르고 있잖아!

[⑥다짜고짜 엉덩이를 때린다.]

아니아니아니,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해설: 필자의 아내는 이것을 하면 무조건 웃습니다.]

초M보다도 더 심하잖아!

[단지 굳이 저로 말하자면, 때리는 쪽보다는 맞는 쪽이거든요.....]

둘이서 때리든가 말든가!

"이 책은 뭐야....."

뭐랄까 , 이제는 년더리가 나기 시작했다. 다음 내용이 눈곱 만큼도 기대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끝까지 훑어보기로 했다.

[⑦ '웃으면 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해 본다.]

표절이잖아!

[해설: 평소에는 무표정한 그녀가 '이럴 때 , 어떤 표정을 지으면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 이렇게 대답해 봅시다.]

그런 상황이 있을 리가 없잖아!

[⑧내년에 생길 일을 말한다.]

그건 귀신 한정이잖아! 방금 전도 그렇고, 사용 범위가 너무 좁다고!

[해설: 귀신 외에는 쓸모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자는 모두 마음속에 귀신을 키우고 있는 법입니다.]

'법입니다.' 는 또 뭐냐! 뭔가 그럴듯한 소리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뭔데!

[⑨웃으면.....]

뭐야, 이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의미 불명이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해설을 봤다.

[해설: 복이 와요!]

너 , 이제 할 마음 없지?!

[⑩간지럽힌다.]

장난하나!

“이 짠 책은 당장 절판하라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 책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어라, 참고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 , 1밀리미터도 도움이 안 돼.”

그보다 상품으로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다. 일 좀 제대로 해라 , 출판사.

“그런가요?”

쇼콜라는 바닥에 집어던진 책을 주워서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

“봐. 말도 안 되지?”

그 내용을 무슨수로 300페이지가 넘게 부풀린 걸까. 오히려 그게 더 신경 쓰였다.

“아뇨, 재미있어요. 비기 ‘간지럼 48수’ 같은 건 전부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야....., 바보 같다.

“이제 됐어. 난 샤워하고 올 거야.”

어째서인지 눈을 빛내고 있는 쇼콜라에게 그렇게 말하고 거실을 뒤로했다.

“야..... , 아직도 읽고 있는 거야?”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거실로 돌아왔는 데 , 쇼콜라는 아직도 책에 푹 빠져 있었다.

그 책에 그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 딱히 말릴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 소파에 앉아서 TV의 전원을 켰다.

아직 꺼내지 않은 배낭의 내용물을 확인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비장의 카드라던 책이 저 모양이니 , 나머지는 보나 마나 시간 낭비일 것이다.

뭔가 참고가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싶어서 , 개그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렸다.

".....퐁."

내용은 개그맨을 모아 놓고 진행하는 전형적인 토크쇼였지만, 역시 프로는 재미있다. 하지만 저 개그를 유키히라에게 그대로 이야기해봤자 분명 재미없을 것이다.

뭐라고 할까 , 개그라는 건 소재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분위기나 과정 같은 복합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그런 센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유키히라를 어떻게 웃겨야 할까?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생각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을 때 , 갑자기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응? 쇼콜라야?"

"카나데 씨 , 저는 간지럼 48수를 마스터하고 말았어요. 실제로 시험해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쇼콜라는 자신만만한 웃음을 띠고 , 소파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이건 바람직한 스킨십을 할 기회이기도 해요."

"스킨십?"

"그래요.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데도 카나데 씨가 여전히 무뎌뎌한 건, 표면적으로만 사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 살과 살을 맞닿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냐. 내가 무뎌뎌한 건, 단순히 너를 상대하고 있으면 피곤해지기 때문—응?

느닷없이 몸이 빙글 뒤집어지고, 거드랑이 밑으로 양손이 들어와 구속당하고 말았다.

"잠깐, 너, 뭐 하는 거야 , 이거 봐..... , 힘이 왜 이렇게 세?!"

다이코 씨나 우타게 선생님도 상당한 괴력이었지만, 이건 그야말로 차원이 달랐다. 몸은 야리야리한데도 바이스로 고정시킨 것처럼 딱 조였다.

아니, 그런 건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고, 가슴이, 가슴이 등에 딱 눌렀다!

"후후, 저항해도 소용없어요."

덤으로, 이 향기는 뭐지....., 달콤하다. 엄청나게 달콤하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향기에 뇌가 녹아 버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버린다..... 이성이....., 큰 일이다.....

"오, 제법 그럴듯하게 표정이 풀렸네요, 카나데 씨."

잠깐잠깐잠깐! 침착해라, 나! 이 녀석은 겉보기에는 여자애지만 정체 모를 이계의 생물이고, 인간이 아닌 데다,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는 강아지 같은 녀석이고....., 그래, 강아지다, 강아지! 이 녀석은 그냥 강아지다!

애완동물에게 흥분하면 어쩌자는 거냐. 주인인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만 한다.

"이봐, 쇼콜라, 놔, 이건 명령—아훗!"

내가 몸을 트는 바람에 겨드랑이 밑으로 나와 있던 쇼콜라의 손이 젖꼭지에 닿아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후후, 그러면 개시합니다. 우선 '암내 휘젓기'."

"아니, 잠깐만 , 기다—푸하핫!"

쇼콜라가 내 겨드랑이 밑을 쉴 새 없이 간질였다.

"좋아요 , 이어서 '흐트러진 안쪽 단추' 갑니다!"

"쇼, 쇼콜라, 그만하라고 했....., 가하하하핫!"

나는 소파 위에서 몸부림쳤다.

"이건 좀엄청난 거예요 , '국화일문자' !"

"야, 잠깐, 거긴 안 돼하하하하핫!"

"후후, 진정한 스킨십은 지금부터예요."

"히이....., 히이....., 작작 하지 않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 아하....., 아하하하하."

십 수 분 뒤. 바닥에 누운 나는, 엄청난 행복에 젖어 있었다.

정말 많이 웃었다. 이렇게 웃은 건 얼마만일까.

"아하하....., 쇼콜라....., 웃는다는 건 , 멋진 거구나."

"카, 카나데 씨가 , 어쩐지 평소보다 위험한 느낌이 되어 버렸어요."

안 되겠다. 전신에 힘이 빠져서 받아칠 기운도 나지 않는다.

그보다, 졸리다. 그저 졸리다....., 이대로 잠들어버릴까..... ,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유키히라를 웃게 만들 방법을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잖아..... 그래, 유키히라에게도 이걸 해주면 될 거야..... 나는 미션을 달성할 수 있고, 유키히라는 기분이 좋아지니까, 일석이조잖아..... 아, 하지만 내가 하면 성희롱이 돼버리겠네..... 대신 쇼콜라한테 해달라고 하면 미션 실패 성공으로 인정해주지 않겠지..... 아아, 그건 그렇고 졸리다....., 졸리다.....

4

"아.....아앗!"

아픔에 눈이 뜨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여긴....., 거실인가?"

왜 이런 곳에서 자고 있었던 거지? 어젯밤은..... , 아, 그렇구나, 쇼콜라가 '간지럼 48수' 인지 뭔지를 했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잠이 들어버려서.....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거지?

"큭....."

삐걱거리는 전신의 근육에 힘을 주어서 테이블까지 걸어간뒤 , 그 위에 놓여 있는 '여자아이의 미소를 GET하는 열 가지 방법 ~이걸로 당신도 인기킹이다!~' 에 손을 뻗었다.

원인은 이것밖에 없다. '간지럼 48수'의 페이지를 펼쳤다. 그 마지막 부분에 붉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다.

※주의! 이 48수를 마스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얻을 수 있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만큼 부작용이 닥칩니다.

그게 뭐야....., 엉망진창이잖아. 그리고 그 옆에 윙크를 하는 미소녀 캐릭터의 대사가 있었다.

'솔깃한 이야기에는 함정이 있는 법이야!'

"법이야, 는 개뿔!"

열 받았다, 무진장 열 받았다! 나중에 클레임 전화를 걸어줄 테다. 도대체 어떤 출판사가 이런 책을 냈단 말인가.

책의 뒷면을 보니 , 그곳에는 "UOG출판!이라고 찍혀 있었다.

"너냐!"

반사적으로 책을 벽에 집어던졌다.

“그런데 지금 몇 시지....., 헉.”

벽시계를 보니 , 평소라면 이미 집을 나섰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큼, 지금까지 한 번도 늦잠 잔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아침을 거르자.

쇼콜리를 깨우려 갈 여유는 없다. 어차피 태평하게 자고 있을 테니, 방치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비명을 지르는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 겨우겨우 옷을 갈아입었다.

어제 쇼콜라가 나에게 건 기술은 고작 열 몇 개(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은)였다. 그걸로 이 정도 통증이니, 풀코스로 당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상상에 몸을 떨면서 복도로 나왔다.

지속성은 없는지 , 통증이 금세 약해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게 있었지.”

어제의 배낭이 현관에 놓여 있었다. 동글동글한 글씨체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다.

‘이걸로 후라노 씨도 콰앙~이예요 , 콰앙~! 쇼콜라.’

뭐랄까, 그 , 엄청나게 머리가 나빠 보이는 문장이었다.

안을 확인해볼까 싶었지만, 배낭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뽕뽕해서 열면 그 순간 다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어깨를 묵직하게 누르는 무게를 느끼면서 현관문을 열었다.

"역시....., 틀렸어."

등교하면서 재미있는 개그가 없을까 생각해 봤지만, 결국 교실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보니, 창가에 서 있는 유키히라가 눈에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자, 유키히라가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갑자기 몸을 돌렸다.

"어머, 아마쿠사군, 안녕하세요구르트."

.....엄청나게 반응하기 까다로운 인사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탄죽을 걸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받아넘길까.

평소의 나라면 어느 한쪽을 골랐겠지만, 오늘은 유키히라가 폭소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개그로 받아칠 정도의 기백은 있어야겠지.

"음메, 웃겨 죽겠네, 내가 져소.....음메."

'져소.' 와 소의 울음소리로 개그를 시도해 봤다.

유키히라는 한순간 의외라는 표정을 보인 뒤, 진지한 표정으로 내 눈동자를 바라봤다.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단칼에 쳐냈다.

“아마쿠사 군은 ‘젼소’의 발음과, 소의 울음소리로 개그를 시도한 거지?”

“차분하게 설명하는 건 좀 봐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알아채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한다는, 실로 안타까운 노력까지 했어.”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게다가 미묘하게 부끄러워졌는지, 두 번째로 말하기 전에 살짝 주저했지. 부끄러워하는 남자 고교생 따위는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수요가 없는데 말이야.”

“저기....., 이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어. 그럼 이 정도로 해둘까. 그나저나, 소라서 젼소라는 센스.....(웃음), 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

“너도 별반 다를 거 없었잖아!”

“어머, 그건 실례지. 나는 코로코o 코믹에서 정식 인사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사전에도 분명히 실려 있는걸.”

“애들이 믿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유키히라는 이른 아침부터 최고의 컨디션이었다.

"유키히라."

1교시가 끝난 뒤 , 일직선으로 유키히라의 책상으로 향했다. 기한은 오늘 하루다. 첫 공격이 실패했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여유는 없다.

"어머, 웬일이야 아마쿠사군."

"있잖아 ,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유키히라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더니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엇....., 그러지 마. 그, 이렇게....., 대낮부터."

"결단코 네가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머, 유감이네."

유키히라는 순식간에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뭘 보여줄 건데?"

"그....., 한 방 개그인데."

유키히라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일이다. 말을 꺼낸 나도,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니 말이다.

"그 왜, 나는 항상 탄죽만 걸고 있잖아? 매번 그래서 재미 없으니까, 가끔은 내가 먼저 개그를 해볼까 해서."

어떻게든 그럴듯한 이유를 지어내 봤다.

"과연, 그 결과가 오늘 아침의 대참사라는 거구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알겠어. 그러면 그 사상 최강으로 재미있는 한 방 개그라는 걸 구경해보도록 할까."

.....이 사람은 왜 멋대로 허들을 높이는 겁니까.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쿠사 카나데 씨의 '지금 막 태어난 인왕상'."

"그런 걸 어떻게 하냐!"

크, 이러면 안 된다. 내 페이스로 해야만 한다.

"가, 간다. '울다가 지리를 깨우친 물개'

" 짹 짹 "

유키히라는 무표정인 채로 효과음을 입으로 냈다.어쩐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할 수밖에 없다. 1교시를 전부 사용해서 생각한 비장의 개그다. 나는 땅에 엎드려서

상반신만 위로 젖혔다.

"오우오우오우! 오우....., 오웃! 오우우, 오우우 , 오우 산맥!"

"....."

주위가 거북한 침묵에 휩싸였다.

몇 초 뒤, 유키히라가 평소보다 훨씬 무기질적인 느낌으로 말을 했다.

"아마쿠사 군은 암전히 탄죽이나 걸고 있는 게 낫다고 봐."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유키히라, 솔직하게 의견을 이야기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재미없어. 죽는게 낫다고 생각해."

"그 정도냐!"

.....미션 달성 실패.

2교시가 끝난 뒤.

"유키히라, 이것 좀 봐."

나는 질리지도 않고 유키히라의 책상으로 향했다.

"꽤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네."

유키히라는 살짝 감탄한 듯이 나를 봤다. 그야 당연하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걸 해내지 못하면, 절대 선택지와 평생을 함께 지내게 된다.

"그래서 이 번에는 어떤 산맥 개그를 보여주려고?"

"아니, 그 정도로 썰렁했으니까, 이제 비슷한 건 안 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마쿠사 군이 산맥 이외의 생각을 하다니, 믿을 수 없네."

"아니, 왜 날 산맥 페티시즘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렇지만 아마쿠사 군, 얼마 전에 '하아....., 하아....., 큰일이야, 유키히라. 나, 이제 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산맥이 아니면 흥분되지 않아!' 라고 했잖아."

"그건 무슨 변태냐!"

결국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역시 탄죽을 거는 쪽이 성격에 맞지만, 오늘날은 익숙하지 않은 쪽을 할수 밖에 없다.

냉큼 웃겨서, 끝내주겠어!

"실은 '지금 막 태어난 인왕상' 을 해보려는데."

".....아마쿠사군 , 용기와 무모함은 다른 거야."

"이걸 제안한 사람은 당신인데요."

"뭐 , 자청해서 죽고 싶은 거라면, 나에게 말릴 권리는 없지만."

큽....., 하지만 이 50분 동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이건 먹힌다고 확신했다. 자신을 믿자!

"쿠구구구구구 , 안녕 , 나, 인왕상. 지금 막, 태어난 참이다. 쿠구구구구구, 쿠구구구구구."

"....."

주위가 다시 거북한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왜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마쿠사 군, 역시 인왕상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멋지다고 봐."

흑평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 유키히라의 코멘트는 상당히 부드러웠다.

"그리고 아마쿠사 군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평생."

"아....., 네..... , 뭔가, 죄송합니다."

.....미션 달성 실패.

3교시인 체육이 끝난 뒤.

"하아....., 하아....., 유키히라, 하아....., 내,를 봐줘."

전력으로 달려서 교실로 돌아온 내 숨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다.

"아마쿠사 군, 단어가 빠진 문장이 마침 딱 변태처럼 됐어."

"그건....., 신기한 우연이네....., 이제부터 할 개그도..... , 변태가 모티프거든."

"과연. 아마쿠사 군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거구나. 어설프게 개그를 하는 것보다 재미 있을지도 모르겠네."

반박하고 싶은 것을 참고 숨을 골랐다. 지금은 개그에 집중하자.

"간다. '변태의 전화'."

먹힐 거다....., 이걸 먹힐 거다!

"어, 언니, 지금 무슨 색 팬티 입고 있어? 응? 창피해? 뭐 어때, 닳는 것도 아닌데. 응? 남의 걸 묻기 전에 자기 거부터 말 하라고? 으헤헤..... , 당연히 노팬티지! 누가 뭐래도 이 몸은 변태니까!"

"....."

주위가 세 번째로 거북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마쿠사 군. 재미있다거나 재미없다고 하기 이전에....., 기분 나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역시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웃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야?"

".....죄송합니다."

"요컨대 , 정리하면?"

".....죄송합니다."

.....미션달성 실패.

그 뒤 4교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 , 5교시 쉬는 시간, 6교시 쉬는 시간에도 박살이 났고,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채로 하루 시간이 끝나고 말았다.

큰일이다, 이건 큰일이다!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유키히라를 불러 세웠다.

“유키히라, 잠깐만 기다려.”

“아마쿠사 군, 미안하지만 나, 이제부터 가야 하는 곳이 있어서, 실례할게.”

“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유키히라는 가방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 버렸다.

“야, 야, 잠깐 기다.....”

불러 세우려다가 문득 멈췄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그를 한다고 유키 히라가 웃을까....., N°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쩔 줄 몰라서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자, 책상 옆에 걸려 있는 배낭이 눈에 들어왔다. 맞아, 완전히 잊고 있었지만, 아직 이게 있었다.

배낭을 어깨에 메고, 유키히라의 뒤를 쫓아서 교실을 나왔다.

유키히라는 교실을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현관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향하지 않고, 반대쪽 복도로 걷고 있었다.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게 교내인 걸까?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 사이를 헤치며 유키히라를 추적했다.

유키히라는 7반과 8반 사이까지 가더니 멈췄다. 그리고 주변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들리지 않도록 벽의 그늘에 몸을 숨겼다.

이 시간에는 모두가 하교나 부활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 나를 제외하고 유키히라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유키히라는 빠른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잠시 사이를 두고 나도 뒤를 따랐다.

층이 달라도 기본적 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올라간 곳은 3학 년 7반과 8반의 사이였다. 좌우로 이어진 복도를 둘러봤지만 , 유키히라의 모습은 없었다.

어딘가 교실에 들어간 걸까. 하지만 유키히라는 동아리에 들 지 않았는데 , 3학년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걸까?

"나머지 가능성은....."

시선을 위로 올렸다. 그곳에 있는 것은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하지만 옥상은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 금지라서 , 이 계단 앞에는 학생의 침입을 막는 붉은색 안전 콘과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된 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응? 뭐지?"

그 계단 위로 쌓여 있는 먼지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확실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다.

하지만 이런 곳에 일부러 들어가려고 하는 녀석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즉, 한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계단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인물은 유키히라밖에 없다. 나는 바를 넘어서 계단을 올라갔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철제문은 상당히 낡은 상태였다. 그곳에 는 커다랗게 '출입 금지' 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손잡이를 돌려 봤다. 철컹 ,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지 않았다. 침입한 유키히라가 반대편에서 열쇠를 건 것일까?

"누오윳!"

힘껏 돌려 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큭....., 유키히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릴까? 아니, 그렇게 느긋하게 있을 상황이——.

[선택하시오. ①"우하하하하! 견고하게 봉인된 마계의 문이여! 나에게 굴복하고 그 봉인을 풀어라!"
②"우쭈쭈, 착하다 착해 우리 문. 착한 아이니까 나를 좀 지나가게 해줄 수 없겠니 ~."]

이건 뭐야..... , 말하라고? 이런 창피한 대사를?

뭐 ,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아래쪽에 사람이 없는지 살펴봤다. 인기척은 없다....., 좋아.

"우하하하! 견고하게 봉인된 마계의 문이여! 나에게 굴복하고, 그 봉인을 풀어라!"

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 뒤, 주위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죽겠네....., 이거."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러웠다.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철컹.

"안 열리잖아!"

이 자식, 완전히 나를 가지고 놀았다. 잘 보고 있어라, 이 망할 선택지야. 너 같은 놈은 반드시 내 쫓아줄 테니까!

그러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우선은 여기를 돌파해야만 한다. 역시 힘으로 비틀어 열 수밖에—.

"오?"

다시 손잡이에 손을 대자 손잡이가 툭 떨어졌다. 이건....., 선택지를 실행에 옮긴 결과일까, 아니면 단순한 노후화일까.

뭐, 이유가 뭐든 간에, 길은 열렸다. 나는 문을 열고 옥상으로 침입했다.

"오오."

무의식적으로 소리 내서 감탄했다.

엄청나게 전망이 좋았다. 고지대라는 입지 조건 때문인지, 광대한 교정은 물론이고, 거리의 광경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마치 전망대 같았다.

“아니, 지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유키히라는?”

교사가 크기 때문에 옥상도 상당한 면적을 자랑했지만, 시야를 가리는 차폐물은 일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키히라를 금방 발견했다.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지를 지면에 대고,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네발로 엎드려 있었다. 그야말로 OTL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여어, 유키히라.”

멀리서 말을 걸어 봤지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유키히라~!”

조금 가까이 가서 더 크게 불러봤지만, 반응이 없다.

“왜....., 왜 난 이런 걸까.....”

바로 옆까지 다가가도, 내가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언가 혼잣말을 중얼중얼 하고 있었다.

“그건 아니잖아....., 그저께 그건 아니었잖아. 왜 MC인 여자애한테 그런 지독한 짓을 해버렸을까..... 아무리 가슴이 작은 걸 바보 취급 했다고 해도.....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듣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긴장해서, 머리가 새하얘져 버리는 바람에..... 우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나에게 교내 방송은 무리였어.....”

강렬한 위화감.

“왜.....,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돼버리는 걸까..... 특히 아마쿠사 군한테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아아, 정말, 분명히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 1인 반 성회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자주 해야 하나.”

이건....., 진짜 유키히라가 맞는 걸까.

“그렇지만 아마쿠사 군도 잘못했어.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는 주제에 갑자기 가슴을 만져달라는 등야한 소리를 하지를 않나, 갑자기 옷을 벗지를 않나. 오늘은 왠지 평소보다 훨씬 더 이상했고....., 사실은 좀 더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아마쿠사 군 생각만 하고 있는 걸까.....”

“이봐, 유키히라.”

그 어깨를 콕콕 찌러 봤다.

“봐, 지금도 있을 리가 없는 아마쿠사 군의 목소리가.....”

“아니, 있는데.”

“하하....., 나, 오늘은 한층 더 맛이 간 것 같네.....”

“아니, 그러니까 있다고.”

지면을 보고 있는 유키히라의 얼굴 앞에 손바닥을 대고 , 획획 흔들어 봤다.

".....응?"

유키히라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안녕.”

눈이 마주쳤다.

"....."

“저기, 유키히——.”

"까아아아아아악!"

마치 이 세상의 종말이라도 찾아온 것 같은 비명을 지른 유키히라는, 엉덩방아를 찢은 채로 샤샤 샤삭! 하고 엄청난 속도로 물러났다.

“야, 야.....”

“어 , 어어어떻게, 아마마, 아마쿠사군이.....”

“유키히라에게 용건이 있어서 살짝 따라와 봤는데....., 기분 나빴어?”

"기기기, 기분이 나쁘다든가, 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호 , 혹시,봤어?"

"봤냐니....., 옆드려서 뭐라고 중얼거린 그거?"

포옹 하는 의문의 소리와 함께 유키히라의 얼굴이 삶은 달걀처럼 새빨개지더니, 그 직후 털썩 쓰러졌다.

"왜, 왜 그래. 괜찮아? 유키히라!"

유키히라에게 황급히 달려가서 몸을 흔들었다.

"으....., 응....."

다행이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닌 것 같다. 미안하지만 안아서 일으킨 뒤,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볼을 가볍게 찰싹찰싹 두드렸다.

그걸 몇 번 반복하자, 유키히라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오, 다행이네. 유키히라 , 괜찮아?"

"으....., 으? 응? 아마쿠사 군? 나? 응? 응?.....음!?"

안겨 있다는 현재 상황을 인식한 모양인지 유키히라의 몸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으....., 으....."

"응? 왜 그래, 무슨 말이 하고 싶——영?"

"까아아아아아악!"

턱 근처에 강렬한 충격을 받고 , 내 의식은 날아갔다.

".....응?"

의식이 돌아왔다.

"어머, 이제야 눈을 떴네?"

팔짱을 끼고 , 나를 내려다보는 유키히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유키히라....., 어라, 나 왜 이런 데에 있는 거야?"

아 참, 그랬지. 유키히리를 웃겨야 해서 옥상까지 따라온 뒤에.....

"어라 ,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뭔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광경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머릿속에 안개라도 낀 것 같아서 기억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아앗! 뭐야, 이건 , 아파 죽겠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댄 뒤통수. 그곳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혹이 나 있었다.

“아, 그건 내가 너의 뒤통수를 죽여라 콘크리트에 부딪친 결과야.”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미안해. 전에 도라쿠 선생님이 가르쳐준, ‘최근 5분 동안의 기억을 없애버리는 혈’을 조금 시험해봤어.”

“그 인간, 선생 좀 안 때려치우나!”

그러고 보니 어제 분명히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런 쓸데 없는 걸 다른 녀석에게도 가르쳐줬단 말인가....., 그보다 이거, 혈이 어찌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힘으로 뇌세포를 죽이는 거잖아.

“아마쿠사 군, 사실 이 옥상에 먼저 온 손님이 있었거든. 그 왜, 소문 정도는 들어본 적 있겠지? 5반의 야마토 군하고 자라 군. 그 둘이 여기에서 저속한 행위에 빠져 있었어.”

“진짜냐!”

소문 같은 것에는 별로 흥미가 없는 나도 들은 적이 있었다. 2학년 5반에 지나치게 사이가 좋은 남학생 둘이 있다는 이야기다.

둘 다 용모가 수려하기도 해서, 약간 흥분한 일부의 여학생이 그렇게 몰아갔던 모양인데, 설마 진짜로 그랬던 건가.....

“응, 그걸 목격한 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어. 이대로는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나는, 둘에게 장소를 옮겨달라고 부탁한 뒤에,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기로 한 거야.”

"그랬구나....., 덕분에 산....., 건가?"

그런 기억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삭제하고 싶지만 , 그 대신에 이만한 흑이 생긴 게 과연 잘 된 일일까.

".....다행이다. 성공한 것 같아."

"응?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 조금 지나쳤던 것 같네."

그 한순간 , 유키히라의 표정이, 본 적 없는 부드러움을 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 금세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런 곳까지 나를 따라온 용건은 뭐야? 설마 , 낮에 하던 걸 아직도 계속하려는 거야?"

그랬다. 지금 기억에 대한 건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응, 뭐 그런 거야."

"그나저나, 왜 나지? 개그를 하고 싶은 거라면, 다른 사람이 어도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 '너를 폭소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괜히 경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매일같이 개그를 하는 게, 참 대단하다 싶어서 그래. 용케 저런 발상을 하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네가 내 개그를 평가해줬으면 해."

"흐, 흐음....., 꽤 장래성이 있는걸. 그렇게까지 내 개그에 빠진 거라면 흔쾌히 협력해줄게."

혹시 유키히라는 칭찬에 약한 것일까. 쑥스러워하는 그 표정은 무척이나 평범한 여자애 같았다.

"라고 할 줄 알았다면 큰 착각이야!"

"너는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건데!"

순식간에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모르겠다....., 이 녀석은 정말로 모르겠다.

"가벼운 위밍업은 끝났으니까, 개그 공개 타임으로 들어가볼까."

개그 말이지....., 뭐, 나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 콘크리트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던 배낭을 집어 들고, 지퍼에 손을 댔다.

"우왓!"

꽉꽉 채운 배낭의 지퍼를 반쯤 열자,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뭐, 뽕뽕하게 채웠으니까....., 이 안에서 쓸 만한 걸 고르도록 하자.

일단 발치로 굴러온 물건에 시선을 던졌다. 이건 뭐야....., 만화? 집어 들어서 보니, 최근에 애니메이션화된 개그 만화였다.

분명 이걸 재미있고 나도 읽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유키히라에게 읽히고 '자, 웃어봐.' 라고 하는 건 좀 억지스럽다.

"아, 이거라면 나도 전권 가지고 있어."

이 중으로 쓸모가 없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개그로 웃기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유키히라는 어떤 장면이 제일 웃겼어?"

이 만화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개그 취향을 탐색해보기로 했다.

"헤로인의 아버지가, 그녀를 감싸고 칼에 베이는 부분."

"유일하게 슬픈 장면이잖아!"

"눈물로 엉망진창이 된 헤로인의 얼굴이 엄청나게 우습던데."

"넌 피도 눈물도 없냐!"

"거짓말이야. 사실은 펄펄 울었어."

.....어쩐지 거짓말 같은데."

"진짜야. 눈물이 방에 가득 차서, 하마터면 빠져 죽을뻔 했어."

“요즘은 초등학생도 그런 거짓말 안 하거든!”

틀렸다....., 평소와 다름없이 유키히라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말았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음으로. 시선을 가방으로 돌렸다.

“이건.....”

웃음주머니인가. 누르면 한없이 웃음소리가 나는 그거잖아. 뭐, 웃음은 전염된다고도 하니, 시험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다. 손에 들고 유키히라의 눈앞에서 눌러 봤다.

「으헤헤헤헤헤헤!»

응, ‘이래야 웃음주머니지.’라는 느낌의 웃음소리다. 좋아, 웃음이 윙는 걸 노린다면,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와하탓! 와하탓! 와하탓!»

조금 전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무래도 여러 종류가 있는 모양이다.

「후, 하하하하하하콜록.....콜록! 콜록!»

“실수했으면 다시 녹음하라고!”

「게겔겔겔! 게겔겔겔! 게겔겔겔!»

“뭔가 이미 사람이 아닌데요!”

「후후....., 그걸로 끝이니, 꼬마야?」

“아니 , 그건 아니지! 분명 웃고 있긴 하지만, 웃음주머니는 이런 게 아니잖아!”

「풋....., ㅋㅋㅋ , 그 콘도 씨가..... , 설마, 그 콘도 씨가 애완동물을.....」

“콘도 씨는 또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 이야기잖아!”

「웃었다.」

“닥쳐!”

「나, 가끔 떠오르는 의문인데..... , 이렇게 웃기만 해도 되는 걸까.」

“되지! 너는웃음주머니니까 그거면 돼!”

「나....., 이제 웃을 수 없어.」

“힘내라아아!”

「웃을 수 없는 웃음주머니는, 그냥 주머니야」

“지당하신 말씀!”

이제 틀렸다. 나는 주머니를 그냥 바닥에 집어던졌다. 유키히라의 안색을 살폈지만, 그녀는 차가

운 표정을 지은 채로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다.

“굳이 말하자면, 탄죽을 거는 아마쿠사 군의 얼굴이 더 재미있었어.”

유키히라는 상당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즐기고 있었다.

“다, 다음이야, 다음!”

하지만 쇼콜라가 준비한 아이템은 예상보다 훨씬 도움이 안 되는 것들뿐이었다.

‘정글 오지에 사는 민족, 레게로족 비전의 농담집~모고로구루리레게로랍빠~’

“부제는 번역 안 했냐!”

더군다나 또 UOG출판이다..... , 제발 좀 망해라.

‘라쿠고 쇼와 명인 12선!’

“설마 카세트테이프냐!”

옥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들으라는 건가.

‘나는 아직 웃을 수 있어!~미소를 빼앗긴 열 명에게 듣는 밑 바닥탈출법~’

“무거운 책이잖아! 분명 웃기는 요소는 하나도 없을걸!”

접혀 있는 종잇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주워서 펼쳐 보니 그 종이에겐 쇼콜라의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었다.

「카나데 씨를 위해서 엄청난 걸 생각했어요. 동상 개그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리젠트 머리를 한 니노미야 킨지로상' 드릴게요.」

“전력으로 필요 없어!”

구겨서 힘껏 바닥에 집어던졌다.

"다, 다음....."

틀렸다....., 이제는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다. 나조차 이러니, 유키히라가 흥미를 잃는 것도 당연했다. 무표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미없어 하는 눈치로,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어머,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아마쿠사 군, 나 이제부터 승마 레슨이 있어서 슬슬 실례할게.”

크, 큰일이다. 핑계는 분명히 거짓말이겠지만, 유키히라의 마음이 집에 가는 쪽으로 기울어버렸다. 같이 돌아갈 정도로 친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키히라가 학교에서 나간 뒤에 따라 가면서까지 웃기려고 하는 건 부자연스럽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웃는 웃음을 끌어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즉, 지금 이 순간이 실질적으로 타임리밋이 다하지만 어떻게 하지? 자력으로든 아무리 애를 써도 무리인 것 같았고, 쇼콜라가 준비한 도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크, 이거 정말로 위험한데.

그때 갑자기 절대 선택지가 나타났다.

[선택하시오. ①웃음은 뻔한 패턴의 반복이다. 왕도야말로 최고이자 궁극. ②시대는 하이 개그. 색다른 감성이 미래의 웃음을 만든다.]

뭐야, 이건....., 뻔한 패턴 아니면 하이 개그? 유키히라가 웃을 만한 방법을 고르라는 건가? 평소에 저 녀석이 하는 개그는 하이 개그에 가까운 것 같지만, 그것과 자신이 웃는 포인트는 별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에잇, 이런 걸 생각한다고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고민해 봤자 시간 낭비다. ①이다, ①!

하지만 결정을 해서 선택지가 머릿속에서 사라지기는 했어도, 딱히 무슨 일이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저러하는 사이에 유키히라는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

"유키히라!"

목청껏 지른 소리에 유키히라가 돌아보았다. 이제부터 뭘 할지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붙잡지 않으면 끝나버린다.

"잠깐 기다....., 응?"

내딛은 발의 발바닥에서 물컹한 느낌이 느껴졌다.

"으게엑!"

화려하게 넘어진 나는 콘크리트에 뒤통수를 세차게 부딪쳤다.

"우오오옷!"

혹 위로 다시 한 번 닥친 충격에, 잠시 기절.

"크....., 이건....., 바나나....., 껍질?"

몸을 일으켜서, 그 녀석의 정체를 확인했다. 아까 쏟아진 물건 중에 이런 것도 들어 있었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뻘하잖아.

"푹....., 킁....."

하지만.

"유키히라?"

어쨌든 낚시가 이상하다.

"요, 요즘 세상, 요즘 세상에 바나나 껍질이라니....., 킁킁."

야, 설마, 이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유키히라는 폭발하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하하하하! 아, 아마쿠사군, 너, 껍질, 껍질이라니! 21세기에 바나나 껍질이라니 ! 콩트냐, 쇼와 시대 콩트냐고! 푼, 키키키키키킱!”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몰라서 멍하니 있었다. 바나나 껍질이..... , 그렇게 웃긴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응?"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문자가 온 것이다. 이 타이밍은 혹시.....

보낸 사람은 '신', 제목은 '미션 컴플리트' 였다. 바로 열어봤다.

[축하합니다. 다음 미션을 기대해주세요.]

응? 된 거야? 이걸로....., 성공인 거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확실히 이래 놓고 진심으로 웃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카데미 상감이다. 그 정도로 시원한 웃음이 었다.

“쿵..... , 크흐흐....., 안 돼, 배, 배가 아파.”

유키히라는 웃음이 멈추지 않아서, 마침내는 네발로 엎드리고 몸을 떨었다.

유키히라 후라노....., 성격만이 아니라 웃음 포인트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랐던 모양이다.

한번은 웃음이 잦아들었지만, 다시 스위치가 켜지고 말았는지, 유키히라는 바닥에 발랑 뒤집어져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리를 버둥거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 그 모습은, 모처럼 예쁜 얼굴이 영망이 되어서, 빈말로도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배를 끌어안고 폭소하는 유키히라의 표정이 어째서 인지 지금까지 본 그녀의 어떤 모습보다도 매력적으로 보여서, 잠시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막간 어떤 가능성의 이야기2

내 여자 친구는 조금 특이하다.

세미롱이 어울리는 귀여운 얼굴에, 쿠키나 포토죠티도 직접 만들어주는 가정적이고 착한 아이지만 뭐랄까, 때때로 말 이곳 저곳에서 남자다움이 배어나온다고 할까.....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지!"

예를 들면 , 이런 느낌이다. 이야기에 장단을 잘 맞추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반사적으로 탄죽을 거는데 , 그럴 때 특히 현저하게 남자 말투가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말투만이 아니라 행동도 그렇다. 얼마 전에도 실수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황급히 막았다. 본인은 옛날 버릇 때문에 무심코 그랬다고 하면서 웃었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녀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여자라는 사실은, 저기, 그러니 까.....,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아 , 그래. 그녀에게는 기묘한 말버릇도 있다.

"그때 솔직하게 존 만지로라고 했다면....."

그녀도 반쯤 무의식적으로 내뱉어버린 것 같았는데 , 무슨 말인지는 몇 번을 물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가끔씩 낮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있을 때가 있다. 비유지만 마치 여기가 아닌 ,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은.....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에 의식이 현실로 돌아왔다. 멍하니 있었던 사람은 나였던 모양이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얼굴은....., 응, 역시 귀엽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나는 불안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카나데의 손을 꼭 잡고 걷기 시작했다.

제3장 유오지 오카의 새로운 세계

"쿨~."

아마쿠사 씨 댁의 쇼콜라는 오늘 아침에도 최상의 숙면을 취하는 중이었다.

".....이젠 뒤랄까, 불평을 할 기력도 없네."

긴장감 따위는 눈곱만큼도 느끼지 않는 태평한 얼굴.

가볍게 탄식을 하면서 침대로 다가갔다.

"아앗....., 그런, 안 돼요!"

흔들어 깨우려고 손을 뻗자, 쇼콜라는 갑자기 야릇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쨌든 요전번에도 똑같은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그, 그러지 마세요 , 나츠히코 씨!"

나츠히코? 낯선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 도대체 누구일까. 상황으로 봤을 때, 쇼콜리를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츠히코 씨, 의식을 잃은 카나데 씨를 덮치다니, 이 짐승!"

나냐!

"안 돼요, 카나데 씨가 수(受)여서는 , 너무 뻘해서 재미없어요!"

말리는 이유가 이상하잖아!

"과연..... , 그만한 각오가 있다면, 저는 말릴 수 없어요."

아니, 좀 말려줘!

"아, 카나데 씨가 일어날 것 같아요. 수면제를 묻힌 손수건으로 다시 잠재우죠."

너 , 왜 나츠히코를 편들고 있냐!

"나츠히코 씨도 꽤 하네요. 바로 거기부터 가는 건가요. 오 오, 카나데 씨의 구멍이——."

"작작 좀 해!"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쇼콜라를 강제로 두들겨 깨웠다.

"후에?"

잠이 덜 깬 눈의 쇼콜라는 두리 번두리번 주위를 둘러봤다.

"어라, 나츠히코 씨는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남남."

쇼콜라는 아침 식사인 고등어 된장 조림을 활짝 웃으면서 입 안 가득 물고 먹었다.

"그나저나 다행이네요~. 후라노 씨의 미션을 무사히 클리어해서."

"아 , 으응, 그러네."

"그런데 어떻게 웃긴 거예요? 평소에는 미소도 안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야 뭐....., 내 엄청난 개그 센스로 웃겼지."

미션을 성공했다는 사실은 전했지만, 쇼콜라가 준비한 바나나 껍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 콧대가 높아질 것 같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얼버무렸다.

"흐~음 , 후라노 씨는 썰렁한 개그를 좋아하나 보군요."

이 녀석 아무렇지도 않게 무례한 소리를 하는군.

"그나저나 카나데 씨."

쇼콜라는 오이 절임에 젓가락을 뺏으면서, 화제를 바꾸었다.

"그저께 했던 '간지럼 48수' 말인데요, 아직 전부 시험해보지 못했어요."

"음....."

등에 닿았던 가슴의 감촉과 엄청나게 달콤한 향기가 뇌리에서 되살아났다. 부작용도 있으니 , 그건 여러 가지 의미로 너무 위험하다.

"안 돼..... 그건 이제 금지야."

"왜요? 오늘 밤에 남은 걸 전부 해볼 셈이었는데요."

"그걸 하면 , 앞으로 네 반찬은 후리카케밖에 없어 "

"그, 그건 지독한 후리카케 고문이에요!"

그건 또 뭐야.....

"응?"

테이블 위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꺼림칙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휴대전화를 열어 보니 예상대로 , 화면에는 '저주 해제 미션' 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바로 제2탄인 모양이다.

그나저나 이거, 도대체 어디 사는 누가 보내는 걸까. 전임이었던 신은 출산 휴가(?) 중이고, 그 날라리 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얼마 전의 전화로 판명되었다.

뭐 , 그건 지금 생각해도 소용없겠지. 어쨌든 내용을 확인하 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야와카제 코나기의 팬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목격하라. 기한 5월 11일(토).]

.....웁니까, 이거. 무슨 소림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림니까, 이거.

몇 번을 확인했지만 , 분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야와카제 코나기라면....., 그 야와카제 코나기겠지.

그 이름은 , 세이코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흥미가 있든 없든 거의 자동적으로 귀에 들어온다.

야와카제 코나기. 공식 순위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2학 년으로, 얼굴이 예쁜 것은 물론이고 성격도 무척 온화한 데다, 덜렁이 속성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남자의 망상을 그대로 구현한 것 같은 존재라고 한다.

순위에 오른 다른 멤버처럼 눈에 띄는 개성이나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순수하고 여성스러운 귀여움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팬클럽 같은 것까지 존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모 양이다.

그런 사람의 팬티를 봐야 한다..... 오늘이 9일에 목요일이니까 내일모레까지다. 아니, 그건 무리지.

"카나데 씨, 혹시 새로운 미션인가요?"

고개를 끄덕이고 쇼콜라에 게도 내용을 가르쳐 주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유키히라의 미션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 웃긴다는 행위 자체에는 저속한 요소가 없었다.

하지만 스커트가 바람에 뒤집혀서 판치라 갓, 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움직이면 아웃이겠지 , 이건.

"괜찮아요. 제가 '여자아이의 팬티를 보는 열 가지 방법' 을 사 둘게요."

"아니 , 그런 책을 어디서 파냐."

애당초 요전번에 받은 미소를 어찌고 하는 책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츠히코에게서 뒷구멍을 지키는 열 가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프로 호모예요."

"프로!?"

"네. 아마추어 호모인 카나데 씨와는 차원이 달라요."

"애당초 전제가 잘못됐거든!"

"엇, 카나데 씨, 프로였나요?"

"잘못된 건 거기가 아니야! 나는 노멀이라고!"

"과연, 스탠더드한 호모군요."

"아니야! 난 여자가 좋다고!"

"뭐야, 바이였어요?"

"거 참 끈질기네!"

"하아....."

아침 댓바람부터 농후한 호모 토크를 하는 바람에, 기운이 쭉 빠진 상태로 등교했다. 게다가 미션도 저런 내용이 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無理잖아, 팬티를 보라니....., 오."

툴툴거리면서 학교 현관에 도착했을 때, 낮익은 사람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유키히라다.

어제 옥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예상 할 수 없어서 조금 머뭇머뭇 말을 걸었다.

".....여, 안녕, 유키히라."

유키히라가 고개를 돌려서 눈과 눈이 마주쳤다. 한순간 침묵이 흐른 뒤,

"안녕, 전투력 5짜리 쓰레기."

평소와 다른없는 유키히라다.

